朝鮮日報 夕刊 十二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上海倍開爾路上서 又復日本人殺害

十一日午後八時四十七分 犯人은行方不明

【上海十一日發同盟】十一日 午後八時四十七分 目下 當地停泊中의郵船笠置丸乘組機關部船員 長野縣出生 高瀨安治氏(四七)가 上陸後 倍開爾路桃源里에서 一中國人에게 拳銃으로 狙擊當하야 左胸部에 貫通銃創을받고 그자리에 昏倒 卽時 福民病院에 入院하엿는데 午後九時 드듸여 絶命하엿다 犯人은 그場所로부터 逃走하야 行方을감추엇다 工部局警察에서는 卽時 非常線을 펴고 嚴探中이다

【上海十一日發同盟】被害當한 高瀨安治氏는 福民病院에서 檢屍한結果 拳銃으로써 背後로부터 狙擊된것이 判明하엿다 彈丸은 左肩下로부터 第五第六肋骨間을 뚤코서 左胸部를 貫通하엿다 死體는 爲先 十一日夜는 福民病院內死體室에 安置하고 十二日早朝 郵船會社上海支店及 總領事館警察、陸戰隊로부터 立會한後 다시 詳細檢屍를 行하기로되엿다

陸戰隊即時出動 現場附近을警戒

【上海十一日發同盟】十一日夜의 倍開爾路事件 發生報告에 接한 上海特別陸戰隊는 卽時 多田野參謀指揮下에 隊員을 現場附近에 派遣하고 總領事館警察及工部局警察과 協力하야 犯行現場及 附近의 日本人居住區域의警戒를 擔當하고잇다

兪鴻鈞市長代理 遺憾의意思表明

【上海十一日發同盟】寺崎領事는 十一日午後九時市政府에 爲先電話로써 倍開爾路事件及 그犯人이 中國人임에對하야 卽時搜査를要求하엿다 右에對하야 市長代理兪鴻鈞氏는 遺憾의意를表하고 九時半公安局에 手配하엿음을回答하엿다

總領事館寺崎領事談

【上海十一日發同盟】總領事館寺崎領事는 激昂하야 말하되 如斯한 不詳事件이 頻發하는것은 遺憾千萬이며 切齒腐心할바이다 不詳事件이 如斯히 再發함에對하야도무엇이라 辨明할가 日本側은 斷乎한決意로서 善處할뿐이다

倍開爾路事件과 總領事館當局發表

【上海十一日發同盟】十一日夜倍開爾路事件犯人에對하야 日本總領事館當局은 左와如히發表하엿다

犯人은 無帽長髮의[illegible]를입은 年齡二十三、四歲 中國式作業服을입은痩形의男子인데 犯行과同時에 桃源里로부터 倍開爾路方面에向하야 逃走한것이判明되엿다 工部局警察에서는事件發生과同時에 非常警戒를하고現場附近을搜査한結果 犯行에使用하엿다推測되는 拳銃一挺及 拳銃彈藥莢一個를發見하엿다

高瀨氏自宅은神戶

【上海十一日發同盟】中國人의兇彈에 斃死한高瀨氏는 神戶市兵庫區二六二에家庭을갓고 家族은妻外幼兒二人이잇다 原籍은長野縣

總領事館警察緊張

【上海十一日發同盟】又復日本人殺害事件勃發에 日本側總領事館警察에서는極度로緊張하야 工部局警察과連絡하야 現場附近에 非常線을펴고 逃走한犯人搜査에 全力을傾注하고잇다

高瀨氏狙擊事件後報

【上海十一日發同盟】高瀨安治氏는 十一日正午지나 上海에 入港한笠置丸으로 乘組의 午後六時頃 歡迎하려나온 倍開爾路桃源里七七號 日本料理屋 「新船」主人 西岡도시子를 더리고 上陸하야 「新船」에 向하는途中 桃源里入口에 들어갓슬際 突然 中國人에게 狙擊當한것이다 總領事館警察 田島副總監 上原總監補等과가티 午後十時四十分前 記도시子를 證人으로 現場附近을 詳細히 實地檢證하엿다

南總督臨場下에 鐵道勤續者表彰

鐵道局에서는 十二日午前十時十分부터 南總督臨場下에 鐵道局第一會議室에서 淸津鐵道工場長宮內丈三郞技師外 百四十三名

應援軍到着으로 政府軍士氣旺盛

叛軍、戰線을整理中

【마드리드十一日發同盟】政府軍은카탈로니아州로부터 大軍의應援을어든後 士氣가갑작히 旺盛하야 叛軍部隊의優勢도 顯著히 鈍先을꺽기게되엿다 兩軍의攻防戰은 依然繼續되고잇는데 叛軍은政府軍의 頑强한 抵抗에 만사나레스河一帶의 陣地를 再整할必要가잇게된模樣이며 目下戰線整理中으로 推測된다 叛軍의十日爆擊은 政府軍에相當한 打擊을加한模樣인데 모라나兵營도大半爆破된模樣이다 十一日 다시 叛軍精銳爆擊機十六臺는 各方面에出動하야 政府軍에 爆彈을投下하엿다 此에對하야 政府軍은 叛軍의背後를威脅하고자 마드리드西南方아랑페스方面에서 行動을開始하엿다傳한다

叛軍政府承認罪로 大使館을襲擊

十一日 파테마라國大使館을 墨西哥國暴力團이

【墨西哥十一日發同盟】과테마라政府가 西班牙叛軍政權을正式承認하엿다는報道에 人民戰線派墨西哥市民은 激昂하야 暴力團은 드듸여十一日 墨西哥市의과테마라大使館을襲擊 書記官을毆打하고 館內에投入하는等 暴行을行하엿다 急報에接한 警官隊가急行하기때문에 大使館은겨우難을免하엿스나 暴力團四名은 抵抗하엿다는理由로 逮捕하엿다

監視案

各國代表意見一致

不干涉會는아즉도잇다!

【倫敦十一日發同盟】不干涉分科委員會는十一日午後三時半英國外務省에서 開會 플리마드議長司會下에 監視案에 對하야 各國代表의 意見이 一致하엿다 스므로 十二日의 總會에 다시案을提出하기에 決定하엿다

一、西班牙海港國境及 飛行場을監視하기爲하야 二個의 國際委員會를 設置할것

一、委員會는 內亂에 關係업는 歐洲各國의 公正한 代表로써 組織하고 一方은 西班牙政府와他方은 叛軍國防委員會와協力하야 監視의 任에當할것

蘇聯代表마이스키大使가 提案한葡萄牙海港監視委員會設置는成立치못할模樣이다

叛軍外交密使로 프將軍令弟活躍

【羅馬(시실리島)十一日發同盟】首都를包圍한 西班牙叛軍은 벌서外交工作에進出하야 密使를 各國에派遣하기로決定하엿는데 프랑코將軍의令弟로서 大西洋橫斷飛行에名聲을博한 라몬·프랑코少佐는 十一日右重大使命을帶하고 伊太利汽船[illegible]으로 시실리島에 到着하엿다 프랑코少佐는 事實의 西班牙國內의 戰爭은 不日에終了하엿다 고 氣焰을吐하엿다 多數를 滯하야 로마로向하엿다

北中防共問題는 全面的으로拒否

日中交涉依然難航

航空連絡、關稅引下協定도拒絕

川越張群會談內容

【東京電話同盟】十日川越張群의會談內容은 十一日午後川越大使로부터 外務省에 報告가잇섯다 仄聞하건대 中國側態度는 相當히强硬한것으로 從來折衝에依한 內諾을變更하고잇는 諸問題에 對하여도 承認을躊躇하고가든態度를示하야 日中交涉은 依然展開의難色이잇는模樣이다

卽同日會見에서는 張群部長으로서는日本側은中國側이 諸般情勢를理由로 故意로交涉遷延策을講究하고잇다고하는데 國民政府는 極力問題解決을 期하고잇스나 一部에서는 强硬論도잇고 又交涉當事者를 苦境에陷入시킨다는 策動도 잇스므로 日本側도 此國內情勢에對하야 充分考慮를 加하여달라

는 纖纖한中國側의 哀情을訴하야日本側의 互讓을求한後 具體問題交涉에들어갓는데 北中防共兩問題는 거의全面的으로 拒否하고航空連絡、關稅引下、顧問招聘等從來의 折衝에서 原則的으로 同意하고잇던 諸懸案解決에對하야는 그協定化를 拒否하는態度에나가 何等交涉은 進展한바업시 會見을終了한模樣이다 따라서 川越張群會談의 續行을 避하야 須磨總領事와 高宗武亞洲司長間에 側面工作을 繼續하야 行한後 會談進展의 機를 보아川越張群會談을 再開할豫定이다 그리고 中國側의 態度强硬은 杭州 西安 洛陽等各地에서 開催한 軍事會議의結果 對日防

衛陣이 完成한것 及日本側의態度가 軟化한것이라 誤診에 基한것으로 日本政府 一部에서는中國側의 不誠意한 態度에 再次强硬論이 擡頭하고잇서서 今後中國側의態度如何는자못注目되다

伊太利政府支持

匈牙利의再軍備

【부다페스트十日發同盟】伊墺洪三國會議는 維也納에서 開催되는데 同會議에서는 匈牙利代表가 크리아논條約의 軍備條項을 廢棄하고 再軍備에 進出할決意를 表明할意圖라推測되며 伊國政府는 以上의 匈牙利代表의主張을 支持할것으로 推測되는데 小協商各國에서는 成行을 憂慮하고 目下外交機關을通하야 對策을協議하고잇다고한다 匈牙利政府가再軍備에 進出할境遇 小協商國은 大概報復手段에나갈것으로 推測되는데 報復은 財政的性質에限定될것이라推測된다

墺匈兩國도 에國合倂을承認

【維也納十一日發同盟】伊墺匈三國會議代表는 十一日第一次會談後晩餐會를가치한 席上墺太利外相 슈미트博士、匈牙利代表드·캉야氏는 차노伊外相에對하야 伊政府의 에디오피아合倂을 承認할旨意思表示를 行할意向이라한다 때마침 十一日은 伊國王빅트리오·에마누엘三世의 第六十七回誕生에當함으로 墺太利政府當局은 右에對하야 十一日左와如히言明하엿다

墺匈兩國外相은 十一日晩餐會席上빅트리오·에마누엘三世陛下에對하야 誕生의 祝賀를하는同時에 에디오피아合倂을承認할것이다

市民砲擊停止要請

【마드리드十一日發同盟】戰禍의中國側의態度如何는자못注目되다 强硬論이 擡頭하고잇서서 今後兩國側의 不誠意한 態度에 再次

比島를不拋棄하면 太平洋上에戰爭!

前比島副總督談

【스프링·필드(마사추셋츠州)十一日發同盟】前比島副總督 니코라스·로스벨트氏는 十一日午後 스프링·필드婦人俱樂部大會 席上에서 比島의 將來에 言及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日本人은 數年前부터 比島를目標하고 잇스므로 萬若 米國政府가 一九四四年 比島獨立完成에 압서서 比島로부터 撤退치 안는境遇에는 太平洋에 戰爭이 發生할것가튼 憂慮가 만타 日本의 大海軍派는 將來 東印度의 支配를 策謀하고잇는 상태로서 今後 比島가 日本、英國、米國三國의 紛爭을 誘致할 憂慮가 濃厚하다

第二次五相會議 十七日로延期

【東京電話同盟】地方行政制度並議會制度改革의 第二次五相會議는 十三日午後二時부터 內相官邸에서 開會하기로되엿던바 事情으로 十七日 午後二時에 開會하게되엿다

外蒙代表身病으로 滿蒙會議暫時休會

【滿洲里十日發同盟】滿洲里滿蒙會議는 第十回會議로 條約案의 草案討議를 行하엿는데 外蒙代表상보우外務次官이 病으로 外蒙側申請에依하야 暫時會議를休會하기로되엿다 또九日 滿洲國代表는 상보우代表를 病床에訪問하엿다

甘八億圓程度론 豫算編成不可能

結局政治的折衝開始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明年度豫算原案을 閣議에提出하엿고 ...

「東亞」宋社長辭任

東亞日報社長宋鎭禹氏는 事件發生과 共히 責任을感하고 辭表를 提出하얏섯스나 重役 株主等의 慰留로 今日에至하얏는데 依然辭意를 가지고잇슴으로 十一日午前同社에서 重役會를 開하고 宋氏의 社長辭任을 承認하얏다 同社는 今後社長을置치안코 專務取締役梁源模氏가 代表社員이 되어 一切에當하기로 되엿다 梁源模氏는 早大政治科出身取締役營業局長으로 十數年間 同社에 勤續한이이다

八面鋒

◇ 明年부터 獨逸이 膨大한 艦艇計劃을 實施하려라고 數字까지分明히發表。

◇ 베르사이유條約을 否認하는날부터 이런計劃이 세워질것이니 놀낼일은아니다。

◇ 日中交涉은 亦是不進、上海에또日本人殺害事件發生。

◇ 東京에 對中强硬論이 擡頭할도 當然한일이나、이러케葛藤이풀리지아니함은 東洋大局으로보아 亦是不祥事。

◇ 西班牙의內亂은 首都攻防戰으로 피투성이가되는판。

◇ 首都를死守하야 政權을 爭奪하느니보다는 祖國을死守하야 人民을救濟하라。

話題論說

煙草稅

◇ 今日부터 담배가세 二割이나 올랏다 ...

(月 城)

日本서第一조흔電球 トウランプ 秋季特賣中 各電氣店에서

十一月十二日낫부터 到處에旋風的 人氣集中으로한 青春座 凱旋公演 ◇上演劇本◇ 林仙圭作 悲劇 貞操城 三幕六場 九月山人作 喜劇 여子息 뉘子息 一幕 東洋劇場

三千里 十一月號 初版將盡・再版絕對不能・곳書店으로!!

東亞、中央 兩大新聞運命 ★時局緊張과中國統一問題 ★新興比島의二大難關 張德秀論 上海의金玉均 總督府法務局案 思想犯保護觀察法 南新總督의 「朝鮮評議會」問題 齋藤前總督의手記 特別二大記事 三十年前의青年演說客 秋夜月과故國山川 文士劇과첫舞臺 檢察室 松花江邊의同胞

好評書籍 作者 李光洙 小說그女子의一生(上) 小說그女子의一生(下) 三千里社 平和와自由 詩歌集

三千里社王篇 朝鮮文壇의 二十年來의名作들중에도 各作家의代表作만을 골라 小說、詩歌、戲曲、時調等百餘篇을 收載한것으로 單行本十卷보다 이 一書가 實로써優勝하다

朝鮮名作選集 定價一圓 郵送料十八錢 收載作家名

小說家會議 1.通俗小說과藝術小說問題 2.모델問題、對評論家問題 3.史話、野談에對한態度等

小說詩歌 伴侶……朴英熙 詩經……金岸曙

映畫會 文士墓誌銘

野談 그處女의艷書……申鼎言 『春香歌』와名唱李東伯……白蓮花

三十錢 半年一圓七十五錢 一年三圓四十錢 (注文은必先金)

京城鍾路二丁目 振替京城二九四九 三千里社 發行

壽松洞公普大火 本館敎室을全燒

一階理科實驗室에서發火

兒童全部無事避難

십이일 오후한시십분쯤에 시내수송정(壽松町)수송공립보통학교 본관리과실에서 불이일어나 불은 것잡을사이업시 본관교실전부를 둘러싸게되여 오후한시사십분쯤에는 드듸여 전소하여버렷다 맹렬한 북풍으로 불꽃과 검은연기는 하늘을찌를듯이 치처올라 참으로 실로 처참한 광경을보혓다 그때는마침 점심휴게시간임으로 아동들은 대부분박게나와잇섯고 교실에잇든 아동들도 전부박그로 피란을하게되여 전교아동은 무사히 종로소학교(鍾路小學校)마당으로수용시키엿다가각기돌려보냇다 발화원인은 아레층한편에잇는 리과실험실에서 발화하야 이움겨부튼것이다 급보를바든 시내각소방대와 소관경찰서에서는 소방수 경관총출동으로 진화에 노력한결과 오후두시반에 불을잡고 이웃집은 무사하게되엿다

平和의樂園이— 霎時間修羅塲化

兒童은一齊히鍾路小校에收容 阿鼻叫喚의現場

백주에 뭉게뭉게 떠올으는무서운 흑연의 뭉치를본 시민의 첫소래는 『저애들!… 우리애기를 어쩌나!』하는 외마듸소리를 남기고는 모다목이메엿다 순식간에 수송학교주위에는 울며불며 웨치는애기어머니와 누이, 아버지, 형들! 한부형으로 에워싸엇다

화재경보의 첫소래를들은 정찰은 종로경찰을 위시하야 부근각경찰에 갓가운 교통순사까지 총동원하야 학교로통하는 길은 골목마다 완전히 막고복잡을 막엇다 소방대의 호쓰는 길목마다 살필어(大蛇)가치 학교내외로 몃겹이나 진을첫다 간신히 사람의 장벽을 뚤으고 학교마당에 달려가니 벌서 화염은 전교사에 퍼지어완전한 전소는 운명에맛기는밧게 소방대의 수고를 다시 기다릴여지 업는 정상이다 금방면시간전까지 귀여운애기네들이 깃버뛰놀든 교정의 이운동장은 순식간에수라장이 되고마럿다 피난아동의 수용소가되여잇는 종로소학교에는 울며울며오는 아희들! 머리에 모자하나씃것이업다 웃저고리도 못입은선생들은 제각기각학급의 아희들수를 세이기에여념이업다 아직도놀랜정신에 어쩔줄을몰으고 떠들석 하여잇는아희들은 아직도 화염속에잇는학교를바라보며 ……우리학교가 업서젓고나, 당시에 어듸서 공부하나하면서 울고잇는것이 여기저기보이어 질일한 아희들의 가엽슨정경이 한층더애처러웟다 그중의 한학년 어느반이 모여잇는곳에 가니 아희들은눈물을 씻즈며

모자가머고 책보가업습니까 점심시간이 되여서 모다 운동장에 나와잇다가 불이낫다기에 어쩔줄을 몰으고 바깨쓰를 가저다가 물을퍼서 애써서 꺼언저 보앗스나 무서운 불길은 그대로 퍼저서 어쩔수가 업섯습니다 글세 어떠케해서던지 불을 끌수만잇스면하고 애는 써보앗스나 저러케 못든불을 어쩝니까 하고 눈물을 씻는다 다시여페잇든 아희는

우리책이 모다타버렷스니 어쩌니 래년 옷 학교입학시험치를 준비하든 책이며 필긔장이 모다 타버렷스니 무엇가지고 입학준비를하니……또……또 우리 성적표도 모다 타버리지안엇니 ……일조에 학교를 불태운 어린가슴에 서러운 설움은크다

어가며하야 종로소학교운동장은 아희들의 눈물에 저저잇섯다 자춤가학급별로 수를조사하니 흐지서 피난하엿든 아희들도 점차도라와서 그수효는 차가고잇서서 아희들의 일허버린것은 거이업을주속이엇섯다 한편으로 종로소학교의 선생과 리학생들이 나와서 피난아동들위하여 앉을자리를 깔아주는등 전대가 가여운것이엇다 그중에부의학무과장이하 시학등이 모히어 피난아동에하여서 교천회의를 한결과

一、아희들은 래일부터 다시불탄자리에라도 모두어 부근학교에 배치할것

一、곳수업을 계속케하야 아희들의 마음을 안정식힐것

을 결정하여 선후책은 진행되고잇섯다(오후세시)

損害二十五萬圓

朝鮮代表的普校建物

朝鮮火災에九萬五百圓保險

불의의 화재로 참화를입게된 전기 수송공립보통학교는 대정십일년오월이십오일 학교창립 당시에 총공비십만원을드려 지은전조선에서도 유수한보통학교로 현재십팔학급 일천이백오십사명의 재적생을 가지고잇스며 교사의 총건평은 팔백평이요연평(延坪)은 일천륙백평의 큰건물이다 건물은 조선화재보험회사에 구만오백원에 보험되여잇고총손해는이십오만원이라고한다

德壽外兩校에 兒童을分配

今後敎授에는支障이업도록 京城府學務課長談

일조에 교사(校舍)가 오유에도라가고만 수송공립보통학교에서는 아동들을십삼일부터덕수(德壽)청운(淸雲)교동(校洞)의 세학교에여섯학급식나노아수용하야공부를계속식힐예정이라고한다 그리고 금번화재에 대한 류본(柳本)학무과장 담은 다음과갓다

발화시각이 주간이엿스며 마침휴게시간이되여 아동이전부 무사한것을 다행하게 생각한다 교장(敎場)에대한 응급책을 세워서 명일부터 교수에 지장이 업도록 만전의책을강구하고잇다

現場서調査된 不足한兒童數

교사가 화렴에싸히자 황겁한아동들은 정문으로 혹은 뒷문으로 빠저나갓스며 혹은 부형에게 이끌리어 집으로 도라가수효도만흔데 전체로 피해아동은 업다고인정된다 그리고 오후세시현재로 종로소(鍾路小學校)피난조사 현장에의하면 부족되는 아동수가 다음과갓다

	一組	二組	三組
第一學年	三九名	四一名	三二名
第二學年	一○名	一六名	一九名
第三學年	三名	一八名	一○名
第四學年	九名	一○名	一六名
第五學年	三名	九名	二名
第六學年	三名	無	

實驗室로부터 轟然한爆音

發火原因에對하야 敎員兩氏를取調

불이 리과실험실(理科實驗室)에서 낫것은 분명하나 그때는 점심시간이엿스므로 그실험실에는 아무도 업섯는데 별안간에 무엇인지 폭발되는 소리가 나면서 불꼿이 일어낫다 하므로 종로경찰서 사법계에서는 그학교소제당번(掃除擔任) 선생 진서제(陳西齊)씨와 선반담임선생 심원구(沈元求)씨를 불러다가 조사중이다 그두선생은 그실험실에는아동들이 표본을 가지러드러가기도하고 소제하러 드러가기도 하는일이 잇스므로그때에 누가 드러갓는지 알어보아야 경로를 알겟다고 대답하엿다그래서 혹은 폭발하기쉬운 약품이 폭발되엿슴이 아닌가한다

未安莫甚하오 野中校長談

불난현장에서 정신을일코 부선발로 뛰여나와피란아동들을 정리하고잇든 야중(野中)교장은다음과가티말하엿다

실로죽가습니다 일반학부형들에게는 무어라고 사과해야조흘지 모르겟습니다

猛炎속에서 級友를救出

맹렬한불꽃속에서 의용미담 — 별안간화재가 폭발하자 동교오학년일조생 도렴정(都染町)삼십사번지 길병덕(吉炳德)씨의 아들 석균(錫均)(一二)은 다리를절기때문에 미처피난을 하지못하고잇는것을 동급생리영표(李永杓)(一二)와 조남규(趙南奎)(一二)두명이 업고나와서 안전지대까지 운반하엿다는데 일반의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二部敎育委員會서 明日對策協議方針

수송공립보통학교 교사소실로 말미암아 그선후책을 강구하기 위하야 십삼일오후에경성부청에서 제이교육부상임위원회(第二敎育部常任委員會)를열고 토의하기로되엿다

附近各建物無事

불난수송보통학교 부근에는바로그동쪽에길을하나 사이에두고숙명녀자고등보통학교(淑明女高普校)가잇고 또남쪽 으로는 조곰상거하야 경성보육학교(京城保育學校)등 건물이잇는데 두학교가모두오후에는휴교하여버렷다

附近交通一時遮斷

화재가 나자 곳 부근 일대의 교통은 차단 되고 전차도 종로(鍾路) 이정목과, 광화문통(光化門通)사이는 운전을 중지하얏다

第三次定平農組 九名에有罪決定

咸興法院公判에廻附

七十餘名을檢擧한大事件

【咸興】금년사월하순부터 정평군내에서 칠십여명청년을 대량검거하야 반개년동안이나 동경찰서에 류치하여두고 엄중히취조하다가 지난륙일 함흥법원검사국에넘어왓든 제삼차정평농민조합(第三次定平農民組合)한목상(韓穆相)등아홉명은 검사국에넘어온이후 련일대전(大町)검사의취조를밧고잇든바 십일일 그취조가끗나고 아홉사람이모두유죄로 결정되소되야 동일로 함흥법원공판에 넘기엇다 죄명은치안유지법위반 출판법위반의 두가지며 공판도근일중으로 열리게될터이라고한다

被告의姓名

定平郡歸林面松門里二二一 農業 韓穆相(三〇)
同 元峰里五五一 農業 李龜燦(二七)
同 歸林面上書里一六五 農業 韓承雄(二三)
同 歸林面內洞里一〇五 店員 韓泰順(二九)
同 文山面元峰里六三一 全克隆(二三)
同 文山面豊陽里一七四 同 韓泰吉(二九)
同 長原面泗水里五五九 同 李在德(三三)
同 長原面長者里四五三 馬法俊(二二)
同 長原面用興里二二〇 金致淑(二一)

등 여섯반을조직하얏다

檄文을撒布

이러케 동지획득에 노력을하는한편 중앙출판부(出版部)를 병치(併置)하야 그책임자로 한목상(韓穆相)이 선정되야 동변이월 이십오일부터사월 이십이일 김문환(金文煥)과한목상(韓穆相)등이 서로 원고를지어 한번에수십부식 륙칠회나 겨문격뉴-쓰등을 발행하야 노나주엇스며 제이차농조의 공판날에는 격문을발행하야 그녀루쟁을하얏다

情勢變化에悲憤 農組再建을畫策

一次二次事件關係者들로 秘密結社를組織活動

긔록에나타난 동피고들의 활동한내용을보면 피고들은모다제일이차 농조사건대검거당시에붓잡혀서 이년내지오년의 복역을하고 작년가을에 출옥한사람들로서 출옥한뒤농민운동의 정세가 전혀궤멸(潰滅)의비참한상태에이르고잇슴으로 한목상(韓穆相)리귀훈(李龜燻)김문환(金文煥)의세사람이 손을마주잡고 재건운동을 이르키기로하야 금년이월십오일 정평군춘류면 신하리(春柳面新下里)박순덕(朴順德)의집에서모혀 정평농조재건준비위원회(定平農組再建準備委員會)라는 비밀결사를조직하고 그활동구역은

長原面 金文煥
文山面 李龜燻
歸林面 韓穆相

으로 결정하고 동지획득에노력한결과검거직전까지 문산(文山)귀림(歸林) 장원(長原)의 세지부를 조직준비하얏고 면지부미혜 문산(文山)면용흥(用興)리반

人口十一萬收容할 咸興"都計"原案

十二日、總督府에서發表

함흥부(咸興府)시가지계획원안은 십이일에 총독부에서 다음과가티발표하엿다

소화사십년까지에 인구십일만명을 수용하게 총면적을 현재의부구역과 운남면사포리(雲南面沙浦里)와 동천면(東川面) 희상리 하신흥리, 풍흥리(東川面會上里、下新興里、豊興里)를 편입하야일천칠백사십삼만사천평방미돌(平方米)로 거주가능면적을 인구밀도는 한사람앞에 일백사평방미돌로되어잇다

도로망계획은 다른도시와 가티삼종육류(三種六類)로 나노엿고 도시가지계획도지구획정리를할면적은 구백사만이천평방미돌이다

天氣予報

概況 優勢한高氣壓은 日本本州의 東方海上에 사라젓는데 局部的低氣壓은 北海西岸에不連續線을 맨들며 東進中이다 七六八미리의 高氣壓은 中國中部로부터 朝鮮을거처 日本本州에퍼지고잇다 滿洲及西日本은 日氣가良好하며 朝鮮半島의中部以北의 氣溫은 어제아침보다 一度內至十一度로내렷다 日本本州의 中部以北은 흐리고잇서면 비가오다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맑음 明日도갓다 京畿道全區도맑다

昨日 最高 一二度二
同 最低 三度二
今朝 最低 零度三
今日 正午 七度七

女子籠球 抽籤期日變更

朝鮮女子籠球界의 掉尾를 裝飾할梨花女子專門校主催와本社後援의 第三回全朝鮮女子中等籠球大會는 來二十一日午後二時半(變更時間)부터 梨專體育館에서열리게되여其參加申請도 十二日까지로막음되야決定이든바 그對陣抽籤은 來十四日午前十一時부터本社會議室에서 參加校代表者가會合한가운데 抽籤과其他重要事項을協議키로되엿다 따라서參加申請도當日까지延期키로되엿다

延專校內씨름經過

延專第五回校內씨름大會는 十日午後二時半부터 同校씨름場에서 擧行한바 新舊學生對抗戰에는 七對五로 新入生軍이 快勝하엿스며 個人戰에는 吳義三君(舊學生)이 優勝하엿다 고한다

▲一等=吳義三(舊學生) ▲二等=河文德(新入生) ▲三等=朴昌遠(新入生) ▲四等=任受彬(舊學生)

南昇龍君退京

伯林올림픽마라손에 三着한 南昇龍君은 그동안 京城에 滯在中이든바 昨十一日 午後十時五十分 京城驛發 木浦行列車로 途中 光州에 들렷다가 鄕里順天을거처 東京의 學窓으로 도라갈터이라한다 驛頭에는 戰友 孫基禎君과 本社運動部員의 餞送이 잇섯다

猛炎에싸인 壽松公普校(上)鍾路小學校에 避難한 千餘學童들(下)

東亞軍手製造家募集

一、弊所製品이오로는一般供給上需要不能이오니 ...

一、他地方에서製造하시는 ...

東亞 軍手

製品宣傳

一、近日弊所商標(東亞마크)를詐稱하는者가만사오니 特히注意하시요 (東亞마크)赤色圓形이오니特히注意하시옵소서

(店章捺印限進呈 軍手時勢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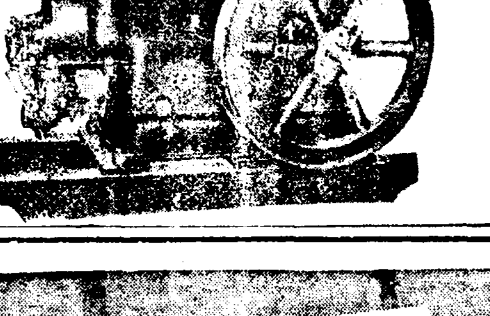
京城府黃金町七丁目四番地 東亞手袋工場 電話本局②五九五七番・振替京城一四五七一番

◎勿失好機!

農林省最高 優位入選機

トバタ 輕油 石油 發動機
瑞光式 籾摺機
マツダ 精米機

最優良機의 特價販賣 期限 昭和十一年十二月十五日



鑛山、土木、水道、農業用諸機械 發賣元 フクロクストーブ

京城府南大門通二ノ一三三 株式會社 松田清商店機械部 支店 新京、奉天、大連、哈爾賓、天津 (詳細型錄進呈)

朝鮮家庭工業 조흔家庭工業 最高의工業社會에이는 大事業進展

第一 第二 參拾萬圓

內外貿易 株式會社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 ...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福藥本舖

參茸トニック 補血强壯劑 五圓・二圓八十錢 京城鐘路三 株式會社 築善堂製藥

最新發明 百發百中 淋疾根治藥 トリコノール

煩悶에서幸福

◎宣傳特賣!

特賣期間 自十一月十日 至十二月末日

甲 三○錢入 一、八○
乙 五○錢入 一、八○

先着一萬人限 二日分無料贈呈

製造 發賣元 太陽製藥社

味の店 千代田グリル 電話新設御披露

皆樣の味の店千代田グリルは此の度左記の通り電話を新設致しましたに付ては一層の御用命賜はり度御待ち申して居ります

新設電話番號 本局②五七八一番

京城府南大門通二ノ一〇 味の店 千代田グリル 電話②二六三三・五七八一番

女給仕募集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京城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電話光化門六八五番

來春 天一靈神丸

藥價 二十錢 五〇錢 一圓

全國各地有名藥店에서 販賣합니다 京城西大門町 天一藥房

團成社

광고 上映 光武劇場

天下一品!! 一家一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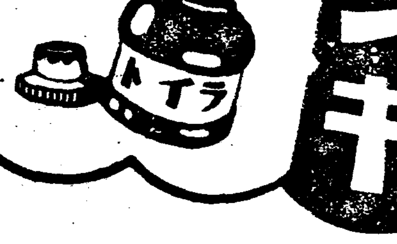
ライトインキ

燈下親書

冊床우에 라이트가잇서서 더욱조타..........!!!

(大、小瓶各種…… 全國各文具店에잇다)

2オンス入 正價30セン



本舗 篠崎インキ製造株式會社

동김치에 소용사신때는 생、마늘、파、고초、무채、미나리、청각、갓、굴、조기젓、배 그리고 아지노모도를 잇어서는 아니됨니다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11—ユ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舗 株式會社鈴木商店

ツライ歯痛(치통)にスグキク 今治水(곤지스이)

本社 京阪 電本(2)一五九七番

●模範的頭痛藥! 胃腸을안상한다

ノーシン(노신)●

弊店創立五週年記念 大景品付大賣出 Ⓢ セイコーシャ時計部 東京市神田區上野 振替(東京)八二一四五番

▲▲▲景品內容▼▼▼

(1) 註文高二十圓以上ナル時 純來ボックス製靴一足宛(足ノ寸法文數指定下サ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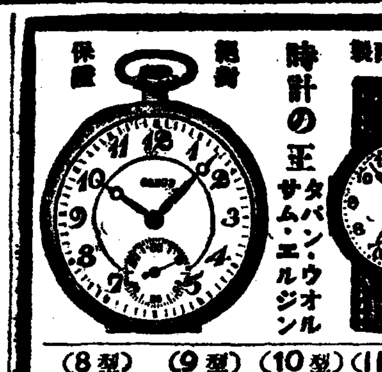
(2) 註文高十圓以上ノ時 純毛コトンシャツ上下一揃宛

(3) 註文高五圓以上ナル時 上等メリヤス上下一揃宛

(4) 註文高三圓以上ナル時 上等毛糸靴下半打宛進呈

●見よ犧牲的此大奉仕を! ●無代進呈の大景品付 ●遞信省御用時計の王タバン、ウオルサム、エルジン ●十五年絶對保證

流行の尖端 時計の王 タバン・ウオルサム・エルジン



▲御注文ニ際シテ▼

※代引註文ハ內金トシテ註文高ノ三割以上御拂込ノ方ニ限ル

※送料ハ前金註文者ニハ不要、代引註文者ニハ負擔

※代金ハ小爲替ニテ

※振替東京八二四五番ニ拂込ノ事

クロム側懷中鍍メダル付 (16型)

型	イ	ロ	ハ	ニ	ホ	ヘ	ト	チ
只の	二・四〇	三・二〇	三・九〇	四・三〇	四・七〇	五・五〇	九・〇〇	一一・〇〇

クロム側腕卷 絹.來皮付

型	イ	ロ	ハ	ニ	ホ
(11型) 只の	二・六〇	三・五〇	四・二〇		
(10型) 只の	四・五〇	五・三〇	六・八〇	八・五〇	
(9型) 只の	五・二〇	六・五〇	八・〇〇	九・八〇	
(8型) 只の	七・〇〇	八・二〇	九・四〇	一二・五〇	一四・〇〇

クロム側ウオルサム懷中 (16型)

イ	ロ	ハ	ニ	ホ	ヘ	ト	チ	リ	ヌ	ル	ヲ	ワ	カ
只の 七・五〇	九・五〇	一一・八〇	一二・九〇	一五・七〇	一八・九〇	二一・五〇	二三・八〇	二四・八〇	二五・九〇	二六・九〇	三五・〇〇	三六・八〇	五〇・〇〇

クロム側タバン懷中 (16型)

イ	ロ	ハ	ニ	ホ
只の 九・〇〇	一一・〇〇	一三・五〇	一五・八〇	一七・八〇

十八金HK側腕時計

型	イ	ロ	ハ
(9型) 只の	七・五〇	八・六〇	九・八〇
(8型) 只の	七・八〇	八・六〇	一二・〇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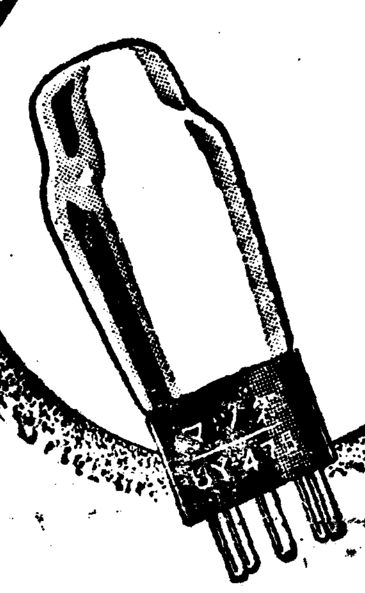
十八金HK懷中時計 (16型)

イ	ロ	ハ
只 一二・八〇	一九・八〇	二二・五〇

マツダランプ(푸)

マツダ眞空管(마쓰다)

必備品二個



東京電氣株式會社

昭和の常識

伯林大會で、我が中央電信局が最も多忙であつたのは、村社の奮闘した日と、孫の優勝した日

引越をしたら、先づ硫黄を皿の中に入れ廣い部屋の眞ん中で燃やし四五時間密閉して消毒するがよい

半煉の仁丹(甘口) 甘十錢一罐每に 仁丹十錢包を全国の各店で即座に進呈

其後抽籤하야 大景品이當籤 ラツキー抽籤券添贈

仁丹

胃腸을調整하는仁丹의藥効

人生의生活榮養을마러보는가장緊要한胃腸을調整하는것이仁丹이다 仁丹의各藥質成分은服用後各消化整腸榮養吸收等의作用을補正하고綜合的으로胃腸을强化한다、故로食後持藥으로서仁丹은가장必要。

家庭的持藥에는大粒仁丹 懷中藥의常用藥에는小粒仁丹

旅行과外出에重寶至極의仁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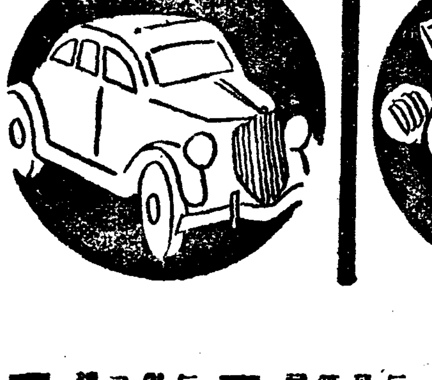
仁丹은服用하면곳全身의快感帶를刺戟하는作用에依하야、雜沓船車等의頭痛眩氣와不快感을곳解消하야恒常아츰가튼爽快한氣分을새롭게한다。旅行과外出에꼭仁丹의必要한것은그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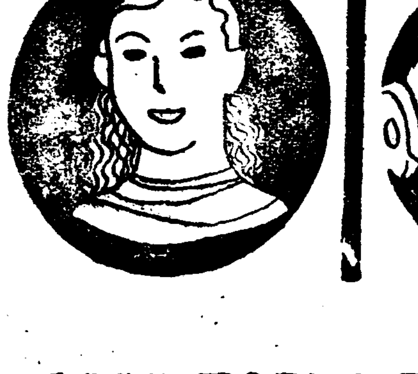
社交포켓트要藥 銀粒仁丹 (常用에는、德用一圓瓶)

口臭와口中을滅菌하는仁丹

仁丹의芳薰과爽快한刺戟性은、어떠한口臭라도不過五六粒으로即席에서馥郁한香氣를發散하고、特히口中을滅菌하야惡疫豫防의効果를發揮한다。仁丹이自他를爲하야社交必携藥으로서重用되는所以이다。

芳薰의常備藥으로、로-즈仁丹 最高級의懷中藥으로麝香仁丹





新藥質의充實에依하야、仁丹은다시一層、日常不可缺의要藥이다

仁丹의新成分

■兩호루몬

仁丹에는 雲山麝香과가라나의 兩호루몬을 包含하야 補精與奮元氣의 充溢等生活之基인 호루몬의効果를 仁丹에 賦加한다

■비타민

仁丹에는 비타민B를 包含하고 消化와 榮養吸收의 調節을 効果잇게한다 그리고 비타민B缺乏의諸症 特히 各種脚氣에 有効한効驗을 齎來한다

■朝鮮人蔘

바나키론及 바나구사보게노-루仁丹에는 朝鮮人蔘의 有効成分을 包含하고 獨特하고 微妙한增健効果와 蘇活作用을 發揮하게한다

■사후랑

仁丹에는 多量의사후랑을包含하고 其特有의 强心作用과 浮血作用과 保溫作用等의 綜合的効果로서 全身的으로 生活機能을 振作한다

全鮮大懸賞結果發表

지난八月十日發表以內 全鮮에施行한仁丹大懸賞은實로豫想外의好成績을엇고、참으로 未曾有의記錄을어더 仁丹에對한 새로운愛用家를激增하야感謝不堪하는바이며、十月廿六日 大阪府玉造署警官과新聞社員立會下에抽籤、左記와如히 當籤者를決定하야、玆에 삼가、謝禮하는바입니다

一等賞

大邱府南龍岡町 村上義好樣

二等賞

大田本町二 李禹榮樣

京城府新堂町 金錫鎭樣

大邱府驛前通 藤原金次郎樣

木浦府室町 金有基樣

京城府鍾路五 韓一完樣

江原道蔚珍郡 朱一郎樣

京城府本町四 小田原琛志樣

三等賞

忠州本町 趙東錫商店樣

黃海道釜山邑 慶和東商店樣

仁川府花町 吉岡東朔樣

木浦府竹洞 卓永鉉樣

黃海道瓮津郡 李承林樣

黃海道長淵邑 采昌瑞樣

京城府新堂町 劉明基樣

黃海郡沙里院 天山榮房樣

慶南統營郡 朴俊弘樣

慶北尙州邑 金基台樣

忠北報恩郡 張潤身樣

全北井邑郡 金洛均樣

慶北善山郡 朴炳瑞樣

釜山府大廳町 河村攸樣

木浦府陽洞 張來洪樣

京城府仁寺町 劉熙在樣

黃海道沙里院 崔貞國樣

京義線順安驛 安萬憲樣

京畿水原郡 金基組樣

咸南豐山郡 李東昇樣

全北南原邑 宮田太郎樣

黃海道內務部 全慶植樣

忠南公州郡 金永增樣

京元線漣川驛 河德淳樣

慶南咸陽郡 鄭然鶴樣

平南大同郡 許小山樣

平北滿浦線球場驛 田中次郎樣

京畿水原郡 鄭光姬樣

慶北醴泉郡 張海得樣

平壤府上水口里 車德亨樣

京畿驪州郡 趙南吉樣

咸南永興郡 金東元樣

咸鏡南道定平邑 文澤魯樣

京元線月井里 吳明一樣

京義線肅川驛 文龍成樣

咸南元山市 金成基樣

全南木浦府 金弘樣

京城府蓮池町 松本樣

同 御成町 金明俊樣

同 新吉町 盧演良夫樣

同 黃金町 朴復陽樣

黃海道新溪郡 崔允煥樣

慶北榮州郡 張漢禹樣

木浦府明治町 金永信樣

同 鐘路商會 淸弘藥店樣

咸鏡線川內里 金福根樣

京城府靑葉町 李松鳳樣

太田府山所里 閔泰基樣

咸北鏡城郡 李鍾國樣

慶南統營邑 吳瑞民樣

平北金城邑 姜昶石樣

元山市外蘇町 李漢錫樣

京城府崇仁町 金圭鐵樣

京義線新幕驛 金在浩樣

京城府西界町 金仁鉉樣

京城府和泉町 小口朝子樣

慶北開慶郡 大邑布木商店樣

京城府本町 高圭林樣

京城府龍山 小田原靜男樣

同 三坂通 鄭完圭樣

同 元町二 岩田良式樣

咸鏡線川內里驛 崔順鎬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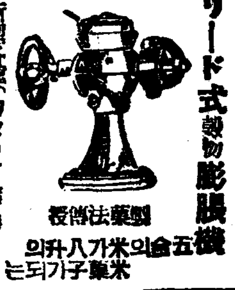
咸南文川郡 金植樣

京城府大和町 鈴木文子樣

●右入賞者는至急히希望하시는賞品을通知하시압

●三等의賞品은發送으로써發表에代함

돈벌기大王 리-ド式製粉膨脹機



製藥法傳授 米八升가米五合의 米菓子가되는

新型各種(カタログ進呈)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一 兒島製作所 (電話北五二九八番)

四大世代 韓氏膏藥

약고씨한 효험

高遂腫治 韓氏膏藥

약고씨한 좋은효력

勇治稀치와安康 고약한 종기

韓氏膏藥

정체되지 골되는

약고씨한

世界의最高評博 세계第一가는 受

韓氏膏藥

項腫에

乳腫

등창에

임이불거리에

痔疾 連珠瘡 外一切腫藥에 特効한

登錄商標 韓 (韓氏高藥)

平壤·本舖

中城韓藥局

(京城府 電話光化門七〇四)

(韓氏洋藥의 新藥局 十九餘種)

곱고 지이적은 안는 산뜻한 기름

ランラン(란란) 洋髮香油

紳士에게나 淑女에게나 좋은 기름

濕布に エキホ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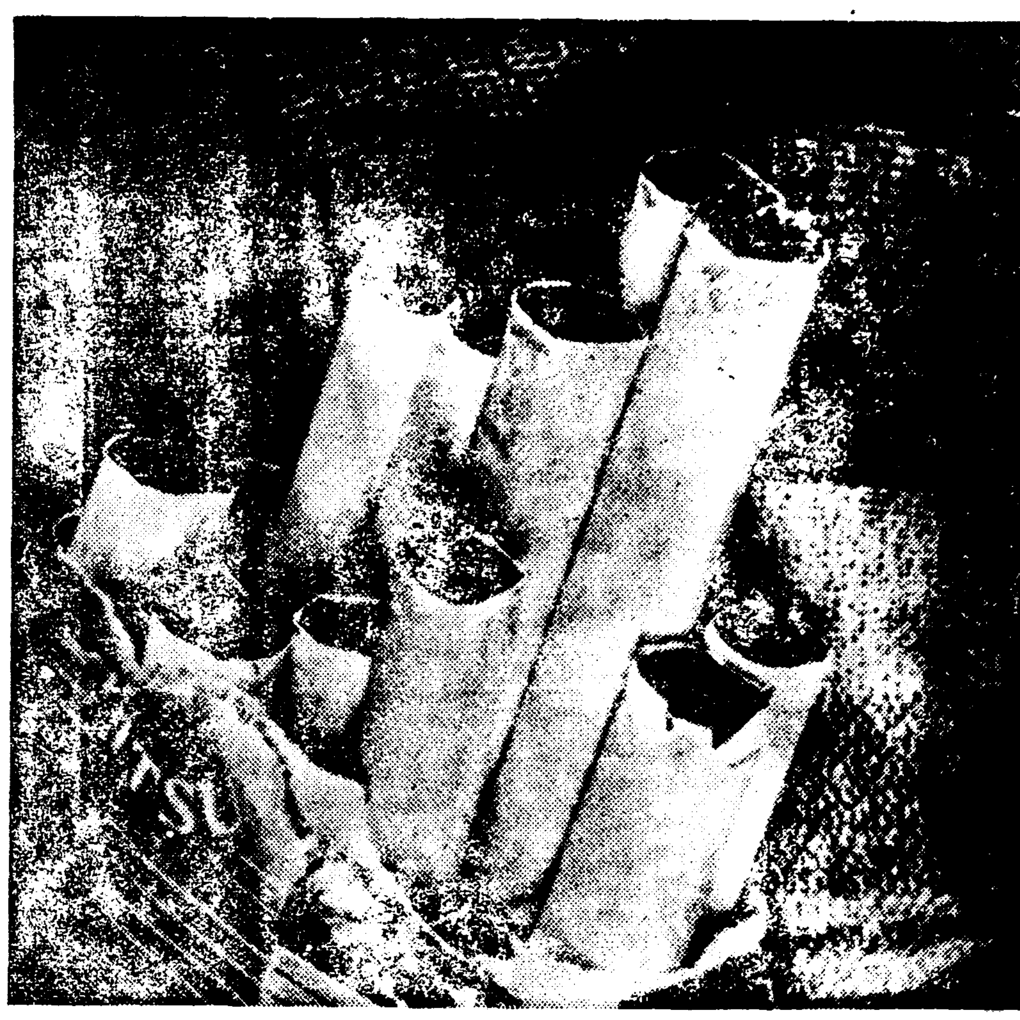
모든 發熱性과 疼痛疾患・假令感氣・肺炎・肋(腹)膜炎・肺尖加答兒・ロイマチス・神經痛・腰痛・肩胛痛・關節炎・火傷・齒痛等에應用하면不便과時間을 要치안는用法・簡便하고 一回의塗布로 長時間効力을 持續한다。

注意 近時 類似粗惡品 多數잇스니 購入할時에 꼭『에기호스』라고指名하라。

發賣元 株式會社武田長兵衞商店 株式會社塩野義商店

製造元 二宮合名會社 大阪市東區道修町

A—13 ⑬



◈승시격하든 첫날 ——(그래픽)——

家庭

무리한주문!
하늘천따ㅣ지
암만가리켜야 알까닭이업다
그러나 배우고십흔욕심
六歲兒童

어린아이가 웬만큼 재조가잇스면 다섯살이나 여섯살쯤되어서부터 글을 가르처달라고조를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입학하기전에 아이들에게 글을가르치는것이 좃치못하니 가르처주지 안흔것이올타고 주의시킴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부모되시는분들의 주저가 생길것입니다 가르처달라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칠 이 올흔가 그러치안흐면 선생의 말대로 가르처주지 안는것이 올흔가 하는데대하야 여간 곤난 을 밧지안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아동심리학(現代兒童心理學)상으로볼때는 오륙세의 아동에게 글자를가르치는것은 절대로 잘못된것이아니라고 하엿습니다 현대유치원가튼데서 아동을 교육시키는데는 여러가지 무리가 잇다고 할수잇습니다 이것이 리상적 지도방법인지아닌지를 다시한번 살펴볼필요가 잇슬줄압니다

어린아이가 글자를 리해할줄안다는것은 례를들면 천지현황(天地玄黃)이란 한문천자책의 벽두를 떠여노코 하날천 따ㅣ지 가물현 누르황 하드라도 이것을 전체로 알따름 결코 한자한자 떼서는 알지못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눈과입에 익어서 외울따름입니다 시험으로 따ㅣ지(地)자를 우에노코 하날천(天)자를다음에 노코 이것이무엇인지 읽어보라고 해보십시요 알지못하는것이보통일것입니다. 아동의 일홈이태식(泰植)이라면 태식이라는 두자를합하야 한개의 그림과도가티생각하고 이러한 획을가진 그림은 태식이려니 하고 밋고잇슴다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무리하게어른들의리해력과 비등하게 평가하고 제법문리(文理)를캐서 가르치랴는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다가 알지못한다고 아동을 책망하는것은 자신을 상실시키는 폐단이 생겨서아동으로하야금 알기를 그르치게 하는수가 잇습니다

그러케 재조가 아조 초월한 어린아이라면 놉히어려운말도잘알게되는데 잘안다하야서 작고가르처주는것은 조치 못합니다 어느영어선생이 자긔어린애게어려서부터 영어를가르처보니 잘배워진다하야 작고가르처 주엇더니 그아이가 그만영어중독이되여서 실성실성하야젓다는 례가 잇습니다 물거품가튼 어린머리에 과중한지식을 절조업시 부러넣는다는것은 무지한지도방법일것이며 적당히 쉬운글자 멧개쯤은 그림과가티 가르처주는것이 조흘것입니다

★曆★

十一月十三日(金)

建戌九月大(三十日)

己亥·木·九·建

●●霜降二十三日(初九日)

●立冬七日(舊二十四日)

京城女基靑主催
本社學藝部後援

清秋를 보내는 樂壇의 선물
朴景嬉孃의 獨唱會
오는 二十一日밤七時半 府民館에서

본사주최〇 [illegible]를 비롯하야 양악으로、구악으로 현란하든 가을의 악단은 마지막으로 커ㅣ다란 선물을 여러분께드리고 막을닫치랴는듯이 보입니다

조선에이름난음악가 그가운데서도 성악가! 하면 누구나손꼽아헤아릴수잇슬만큼 희귀하다고 볼수잇습니다 그가운데에서 찬연히빗나고 특이하게 반짝거리는것은 소프라노 박경희(朴景嬉)양의 존재일것입니다

이양악계의희형인 박양을초빙하야 경성여자긔독교청년회주최 본사학예부후원으로 오는이십일일(토요일)밤일곱시반 시내부민관에서 독창대회가 열리게되엇스니 금번도악단에 큰긔록이남을것은 차치해두고 벌서부터 이소식을엿드른 장안의음악애호자들의 인끼와축복은 말할수업시 노파잇습니다 특히 이대회에서 박양을도와 반주의수고를맛기지 안는분은 재경외국인음악가중 다재다능하기로 넘버원인뿌ㅣ스부인이니 박양과의콤비로말하면 금상첨화의격입니다 박양의략력을소개하면 일즉이 동경에잇는 일본고등음악학교성악과를 우수한성적으로마치고 다시동교연구과에서연찬하면서 이태리인성악대가『아레리오·베렌드』씨와 음악평론가탕천영년(湯淺永年)씨 성악가 평간문수(平間文壽)씨등의 문하를거처 거이완성의경에이르게되엇습니다。그리고 전일본신인연주회에 모교대표로 출연하야 수상한일도잇스며 일본내지각도시에서 양의연주회가 열리기도여러번이엇스니 양의실력은 더말할것업습니다 이것도 벌서 여러해전일。오늘날까지 남몰래 연마에연마를가한 그성대가 열리어 참말로 그예술적진가를자랑할날은 머지안흔당일일것입니다 당일의입장료는 보통이십전학생십전

못생긴 얼골을 근심하지마자
미인도 마음대로
과학의덕분으로얼골까지미화
◇무엇보다눈의변작

사람의 표정이란 만히 눈으로 좌우됩니다。눈을 보아서 사람의 심정을 판단한다는 옛말이 바이 허튼 소리는 아닙니다。아니、젊은 아가씨들의 아리따운 매력도 거의는 눈으로부터 나타나고 잇지 안습니가? 더구나 눈과 눈사이에 오고 가는 정이 남녀교제의 첫거름이 아닙니까? 이처럼 중요한 눈에 대하야 어떠케 하면 더이뻐 뵐까 어떠케 하면 더 아름다워 질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할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요사이쯤은 웬만한 눈이라면 이런 방법 저런 수단을 다 부리어 아조 그림돗 하게 맨들 수가 잇답니다。

눈의 움즉임이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하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에 잇서서 눈꺼풀이 다첫다 열엇다 하고 눈동자가 이리 굴럿다 저리 굴럿다 하는데 지나지 못합니다。본래 눈꺼풀이다첫다 열엇다 하는 것은눈동자가 간조해 지지 말자는것인데 그 것이 자꾸자꾸 발전해서 모든감정을 표현하게 까지된 것입니다。몹시집거워도 눈이 감기고도 몹시 무섭거나 격정스러워도눈이 감깁니다。그 반대로몹이 나게되면 눈이 커다라케 떠지고 무서울도 극도로 올라 가게되면 눈이역시 크게 떠집니다。그뿐이아니라 음악을 잡착하니듯고잇서도 눈이 감기고 십히 울거나 웃을때도 눈이 감기어 집니다。또 그반대로 무엇을 주의하야 보게되면 패불패를 막론하고눈이 크게 떠지고 감정이흥분되야 마음이 어느 한곳으로 쏠리게 되면 역시눈이 크게 떠집니다。

×

이러케 간단히 말해 버리면 간단한상 시프나 실상 신경의 어떠한 자극이 눈으로 전하야 질때 그색채 그 광휘 또는 눈근처 근육의 움즉임등 형형색색의 경우를 보이는 터로서 사실상 복잡미묘하기 거지 업습니다。설사、사람에게입이 업섯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말이 눈으로 통하얏스려니와 입을 가진 오늘의 사람들도 그윽한 사정은 만히 눈을 빌게쯤 됩니다。그런데 대체는 감정이 흥분될때 눈의 광채가 더하야집니다。그중에도 남녀간 생리적 흥분은 안근(眼筋)이 긴장되는 동시 상안검근(上眼瞼筋)이 수축되야 눈이 아조 커다래진답니다。젊은녀성의 눈으로 회가 빠르고 광채가 강한니다。청춘의 꽃다움이 오로지 눈에 잇다고 하야도 과언이 안입니다。춘긔발동긔의 색시들은 첫재눈꺼풀과 머리털의 빗갈이 변합니다。젊은부인네들도 임신중은 물론 월경중에 눈꺼풀이 변색됩니다。

×

이러한 눈을 요사이 와서는 인공적(人工的) 아조 쉽사리변하야 버립니다。반가운 소식이요 또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一) 아이샤도로써 쌍거풀처럼 맨들어 보일뿐이아니라 눈속이 깁게나 눈이 크게나 다 그럴돗 맨들어 보입니다。

(二) 아조 수술을 해가지고 쌍거풀은 홑눈꺼풀로 모양을 변작하기도 합니다。

(三) 각막(角膜)에 색소(色素)를집어 너허서 눈의 빗갈까지도 임의로 합니다

(四) 점안약(點眼藥)을 사용해 가지고도 어느정도까지 눈을 윤택하게 하는 동시 눈동자를크게하기합니다。

『작난ㅅ감배』

가랑닙이 파르릉
울며 떠는밤에
엄마 무릅에
올러 안저서
생각하기는
ㅡ지난여름 개천에
이지버린배는
어디로 흘러갓슬까

(글、그림 박새창)

왕자와거지
⑭ 마ㅣ크·토웬 作 崔秉和 譯

九、어머니의참사랑

이야기는밧귀여서 톰의아버지촌·칸틔로해서 『잡스런뒷길』로무리하게 잇끌리어간 정말 왕자는 엇더케되엿슬가?

『여보게、자네 이게무슨짓인가』

왕자직겁떠들면서 두사람의 뒤를좃차오는 수업는사람들틈에서 오직한사람 이러케말하면서 톰·칸틔가 함부로끌고갈때마다 왕자를위해서편을드러주는 로인 잇섯습니다。그러나 왕자직접떠드는 통에이노인의 말따위는 칸틔의귀에는 조곰도 들리지 안엇습니다。

왕자는 어떠케해서든지칸틔의손아귀에서 버서날라고 버둥거리며 소리를지르기도 하엿습니다。

『에이、참 망할자식이다。』

칸틔는나중에는 화가나서이러케말하드니 갑작이 가지고잇든 참나무막대기로 왕자의머리를 때릴라고하엿습니다。

『저런、』하고 로인은 황급히말하면서 번적들은 칸틔의팔목을 잡을라고 뛰여갓스나 로인이라 기운이모자랏습니다。웅! 소리를내 참나무막대기는 로인의팔목을 때리엿습니다。

『어구、아퍼。』

『맛이어떠냐。쓸데업시 남의일에 덤벼드는놈은 용서할수가업드라。이놈、톰대신 한번 더 맛을보런』하드니 칸틔는 술기운과 노염으로해서 막대기를 벗적들어 사정업시 로인의머리를 향해서 내리첫습니다。

『악!。』하는 소리와함께 로인은 펄석 여러사람아페 꼼짝도못하고 잡바저버리엿습니다。그러나 누구한사람 도라다보는사람이업서 잡바진 로인을 밟고너머가면서 칸틔와왕자를 따라갓습니다。

얼마안되여서 왕자는 칸틔의 좁고더러운집으로 잇끌려드러갓습니다。따라오든 사람들은 그때까지 물러가지 안코 흘금흘금 문안을 드려다보므로 칸틔는

『이자식들 무슨구경난줄아니』하고 문을 핵ㅣ닷처버리엿습니다。좁은방에는 희미한양초불이 변변치못하게깜박이고잇섯습니다。그어슴프레한 빗츠로 왕자의 눈에도 이거지집가튼방속이 어떠튼바라다보엿습니다。ㅣ더러운옷에싸인 처녀두사람과 한사십세쯤되부인이 한구석에안저서 눈치만보고잇고 또 한구석에는 머리가하야케신보기만해도 마음이고약 해보이는 주름투성인 할멈이엇섯습니다。

『어머니、이것좀보시겟수 자미잇는 연극을 합이요。』

이러케말하면서 왕자역프로오랴는 할멈을떠미리보내고는왕자에게 향하야

『아자식아、이러나거라。』

하고 말햇습니다。

유ㅣ모어小說

姓女씨 (六)
金熊超 作·畵

屋上風景(6)

『그까지께、아무러커나 틀르면 대순가。세상엔는 나뭔징호르쓰드레도 저편의 가장만상하지안토록 또두사람사이의 가장귀중한 그닙부에란 그것만 표시해가면서 한다면 저쪽에서는 언제나 만족일께야。자네들이 새삼스럽게 이제와서 여보지요 부인! 한다고 네 나리 무슨말씀이서요? 하고 공손히 와서 도사리고 안젓나。—여보마누라! 한다고 영감 왜그러시우! 하고 텁을 치바치고 덤비겟나。그러니 되는대루 그때그때 형편따라 아무러케나 부르게그려。여보! 그런든지 여봐! 그러든지、아냐! 그러든지、저ㅣ하고 무슨 할말이 잇는듯시 소리를 지르든지간에 저쪽에서 자기를 부르는줄만알면 그뿐아닌가。그리고 정 그칭호가 무미건조해서 부르기실커든 워ㅣ리、왜야왜야왜야、구ㅣ구……무슨소리든지 다 조와。그러나주깃자깃하게 조흔자이가아닌데다가 요근래는 공연히 입놀리기 귀찬어서 부르는대신 문짝을광광울리거나 사기재터리를 뚝뚝두디리네。마코ㅣ물뿌리가 위생상에만 조흔줄아랏드니 재터리두드리는데도 십상이든걸! 그런데 그소리를 듯고도 용케아라듯는것을보면 여편네란 영물이야。쉐파ㅣ드만콤이나 민첩하니까。』

『그래 안해부르는 얘기는 인제 그만두고 안해가 남편부르는얘기나 좀하세。』

민보군이 도사회격이되어 화제의방향을 돌리러햇습니다。

『그거 역시빠ㅣ느하지 뭔가。영감ㅣ라고안하면 나ㅣ리、서방님아무게아버지、여봐요…멋대로 부르는게지뭥。요새 시체일본녀자들은 남편에게 어리광하느라고 파파! 하는모양이데。파파란서양애들이 부르는 아버지란 말인데 남편에게 당한소린가그려치만 애아버지란뜻으로 해서이되고 또서양사람은 연애할때에 남자가 여자보구오ㅣ나의비둘기여!하면 녀자지신은오! 나의꿀돼ㅡㅡ지여! 한다데。비둘기면 오히려 깨끗하고 귀여운동물이지만 그래 돼ㅣ지가뭔가? 그래 돼ㅣ지가 사랑스런동물이될수잇나? 그런커만 사내들은 그소리가 듯기조와서 연송 신이나서 야단이라데。……사실에잇서 이것도 숭볼께아니야。우리네할머니 어머니가 우리어렷슬적에는 우리가 귀엽고 귀여워서 내강아지야! 하셧스니까……그식으로 자네부인이 자네들을보고 황소! 하거든 황소체하고 식식거릴뿐이고、두겁이! 하거든 두거비체하고 쭈 그리고안저서 해올리는것이나 널름널름 바다먹을일이야。저쪽에서하는말을 이쪽에서 노하지안코 드러주면 이쪽에서도 무슨 소리거나 할수잇지안흔가。술먹고 드러간날 뭐나잇나하고 호주머니를 뒤지거든 요여호야! 그러고소리를 뻭뻭지르면서 바가지를글커든 왜가리! 그러고…그러나 엇잿든 이런모든소리는 부부간의 지극히애정을 토대로하고할소리이지 사이가 버러젓슬때할소리는아니야。그리고 채신업는 친구들아 결코남듯는데서는하지도말고 단두내외끼리만 하게』

몽백군이 한참신이나서 짓거리는판에 급사가 쪼차올라와습니다。

『저ㅣ과장께서 그러시는데 시간이지나도록일을 안보니 동맹파업을할작정이냐고요』

의할것은 방금 말한바와가티안해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애정의 표현만은 십이분 넘처흘러야한단말이야。만일 그러치를못하고보면 당장에 벼락이 내릴껠세。뻔한노릇아닌가 거센여편네가드면 달려드러 무릅못든지 할키든지할께니까……。위험해서 이러케도 부를수업다면 별도리업시 초인종을 하나사노치。그리고 라이스카레를 주문할때모양으로 땡땡! 두번식치게。가장신사적이요 과학적인 방법은 아마 이게 되겟지。』

『그러다가 녀급대우를 한다고 달려들지안켓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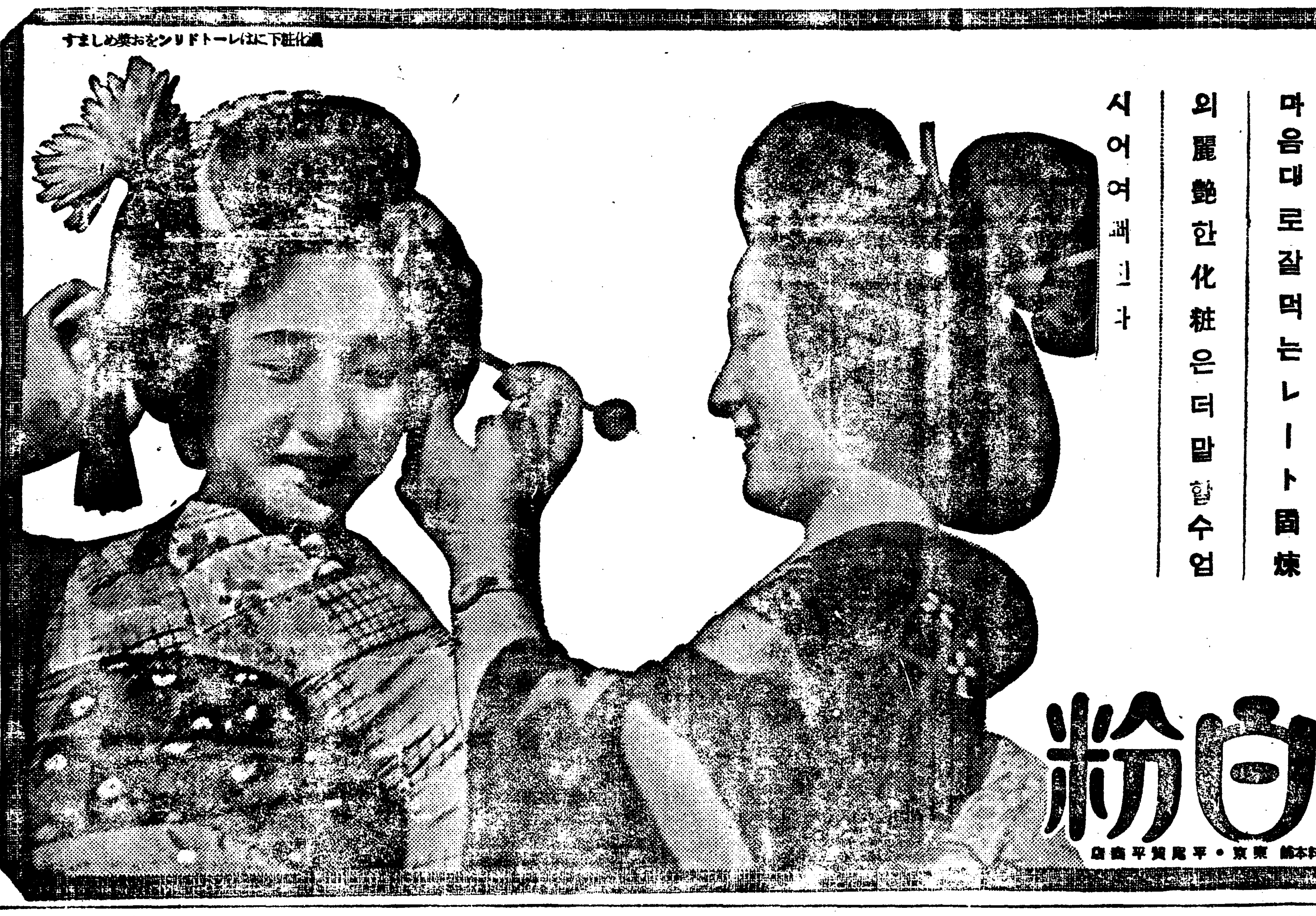
태학군이 그럴사하게듯고 다짐을 밧는눈치엇습니다。

『이사람아 녀급이라면 조엇대 돈흙주고 부려먹어야 녀급인가 우리끼리말이지만 안해란 월급업시부려먹는 녀급이지 뭔가? 안해란 너무 처대꾸레기를 맨드러도 못쓰고 너무위해도 못쓰는게야 너무 위하면 절대모서논것가태 까다럽고、탈이만하자미업서 그러니까『고릴』의 녀급처럼 점잔히 취급하지 월그러나』

『그럼 자네는 자네부인을 부를때 초인종울치나 깽과리를치나?』

관수군이 뭇시궁금해 햇습니다。

『글세 나야 악가말하드시 대중이업는편이야 초인종애기는시체사람인 자네들을위해한얘기고 또우리내외는 보지부터 아



넘치는 麗艶美!

머리가검어 어여뿌고
목이히여 더어여뿌고
立體的으로 濃淡이업서서
마음대로잘먹는レート固煉
의麗艶한化粧은더말할수업
시어여쁘외다

古典味그욱한!

レート固煉白粉
레ㅡ도

レート化粧料本舗 東京·平尾賛平商店

眞興王北省碑踏禮記…(七)
北省碑由來(下)
李殷相

實物은 행여이 업서지지아니하얏다。
最近에 金演奭(1865―1930)이 이것을차즈러 當地에 望十十 雲霧碑一帶를헤매어 마침내 黃草嶺의 아래서 어떤碑石을찾고 그리하야 세상에 널리알리매 斯界의學者諸氏가 다투어 이碑를 論하게되자 마침내 郡內의住民이 分義을모아 여기에다 碑閣을建立하게되것이다。
그러면 碑自體의 東國地理志외一文以後에 金秋史、姜菜素等은 이碑의實物은 보지못하고 碑帖的으로나마 이碑의 史實性을 否定하엿스나 이제 金演奭의功으로 碑의實物을 차젓다손치더라도 이것의眞否는 무엇으로 알것이냐는것이 問題다。
評論 이것은 史學的으로는 金石學的 詳細한 鑑識을 要하는것이지만 이를一切 專門大方에讓하고、簡單히 結論的인 數言을費하건댄 三國史記에 何等의 記錄이업다하는것으로는 이碑를否定할수업다고본다。
評論 三國史記의記錄이 新羅에對하여서 特히多闕이오 또 詳細한것임에도 不拘하고 어찌하야 이와가튼 國王巡狩의 大史實이 적히지아니하엿는가 하고 介疑할수도잇슬것이다。
그러나 三國史記의 記錄이 特 어떠커나 簡略하고 疎漏한것임은 달리 다른史實에서도 그例證을 보는것이지만이 眞興王碑石問題에잇서서는 더욱그러함을본다。
眞興王 四大碑中 가장重要에가까이 잇는昌寧에서 된것實도 記錄되어잇지아니하고、北漢山碑에잇서서도 二十九年의事를 十六年條에 記錄한것等 그錯誤紛雜함이 이러하매 史記에 黃草嶺碑와 磨雲嶺碑等이 記載되지아니하엿슴을怪異하여겨 이것을 否認할수는 업는것이다。또한 이것을 後人의僞作이라보기에는 何等의 根據가업고 碑自體의文面이나 書體도 後代에서는 模倣하기 어려운點等으로 이를 한개의 새로운史料로 볼수밧게업는것이며、또 黃草嶺碑와 兩碑對照하야 이新碑의出現이 우리 古史硏究上에 어떠케나 큰參考가될 을 보아、이碑의價値를 높이평가할것이다。
碑의高는 約五尺五寸、幅約一尺五寸、厚約一尺으로서、字體는 六朝時代의書法이라 일컷는것이오、多少의缺字가 잇스나 現存한眞興王의 다른三碑와아울러歷史上에 큰參考가 될만한 內容을가진것은 매우 이愉快한일이다。
이碑를建立한太昌元年이란것은 眞興王의 登國二十九年이오、두번째의 改元年號니、當時 高句麗는 平原王十年이오 百濟는 威德王十五年이오、陳의光大二年이며 西紀五六八年이라 지금으로부터 一千三百五十年前의일이다。
이碑의石質은 花崗岩이요、特히碑冠에까지 細心한彫刻을 하야 金石으로뿐아니라 한개의藝術品으로 볼만한資料여니와、碑는 兩面을다利用하엿는데 陽面은十行 每行二十六字요 陰面은八行、每行二十五字다。
이제 難澁한채로 碑文을 紹介하건댄 이러하다。(今番當地 保存會에서 刊布한 碑文印刷物에 字數의不足도잇고 誤字도생긴것은 遺憾이다)

(陽面)
(1)太昌元年歲次戊子△△卄一日
(2)紀也
(3)夫純風不扇則世道乖眞化不敷則耶爲交競是以帝王建號莫
(4)不修己以安百姓然朕歷數當躬仰紹太祖之基纂承王位兢身自
(5)愼恐違乾道又蒙天恩開示運記冥感神祇應符合筭因斯四方託
(6)境廣獲民土隣國誓信和使交通府自惟忖撫育新古黎庶猶謂道
(7)化不周恩施未有於是歲次戊子秋八月巡狩管境訪採民心以欲
(8)勞賚如有忠信精誠才超察厲勇敵强戰爲國盡節有功之徒可加
(9)賞爵物以章勳效
(10)引駕日行至十月二日癸亥向涉是達非里△廣△因諭邊堺矣

(陰面)
(1)于時隨駕沙門道人法藏慧忍△太等喙部居柒夫智伊干內夫智
(2)智伊干沙喙部另力智迊干喙部服冬智大阿干比知夫知及干
(3)未知大奈末及珍夫知奈末執駕人喙部萬兮大舍沙喙部另知
(4)大舍裏內從人喙部沒兮次大舍沙喙部非尸知大舍△人沙喙
(5)部爲忠知大舍占人喙部与難大舍藥師篤支次小舍△△
(6)本彼部加良知小舍△△本彼部莫沙知吉之及伐斬典喙部夫
(7)法知吉之裏內△△△△△△名吉之堂來客裏內客五十外
(8)△△△△△△△△△△△△客沙千助人沙喙部舜知奈末
이것이 이碑의全文이다。(終)

十一月創作評
事件의焦點과描寫의省略
④ 嚴興燮

『호박꼿』趙碧岩氏作 (朝鮮文學)

이作品은 中篇 農耕의 一節로쓴것이라는 作者의 附記가잇스며 군데군데의 一省一略된部分이 만히잇기때문에 完全한批評은 매우困難하다。
그러나 이作品은 氏가 쓴作品가운데 農村을 題材로한것으로서 努力이보이는作品이다。
中篇인만큼 作中人物이만타。김참봉、七星이、김첨지、이뿐이 김상호等은 이作品을 짜나가는 重要人物들이다。
그러나 七星이와 이뿐이의行動과性格이 이作品構成上으로보아서는 누구보다도 가장重要하게 取扱되엿서야할것인데 이作品은 너무도 主要人物을 만히 만들려는 作者의情熱때문에 오히려 人物들이주는印象이 平坦하고 散漫하다。
따라서 事件과場面이 作者는 너무끄리알는게만그리려 努力햇지 事件의焦點이나 一選一擇할部分 省略할部分等에對한 用意가 等閑하지나안홀가생각된다。
더구나 地主김참봉에게 不滿을품고 머슴들이모이어 가을일을 못해보겟다는 重要한 일을 協議하는場面은 아모리非組織的 農民들이라하더라도 좀더 深刻한興奮이 나타낫서야할것이다。
七星이가 산골로 나무하러가면서 노래를부르는場面이라거나 七星이가 백중날 씨름을하야 賞을타가지고 이뿐이를 차저가주는場面 等은別로 필요업는데가업는 로맨적한描寫나 이뿐 一를 强姦하려는 김상호의 性格은너무陳腐하게보다도 全然取扱되여잇지안코 또한 强姦하려는 場面이 너무支離、露骨的으로 描寫되엿기에 讀者의 不快를 사게하는것이라거나、이첨지가 나무하러갓다가 몰붙더처서 結局은죽게까지되는것은 作者가 이첨지를너무無殘하게 犧牲식힌것밧게 더 表現되지안는다。
어作中의 이첨지는 一恰一似히 魯迅의 「阿Q正傳」의 主人公을 聯想케하나 地主의虐待、蔑視로서 죽엄을 맛게되는 悲絶慘憺한光景이 엿보여지지 안는것은 이作品에잇서서 가장큰 致命傷이안이면안된다。
구태여 中篇의 一節을가지고 이러궁저러궁하기는실타。아프로 中篇으로서 完結된뒤에 이作品을 또다시 吟味하려하거니와作者에게付托코저 하는것은 事件을좀더 選擇할것과 그事件의焦點을잃지말것과 따라서 省略될部分이 어듸라는데에對한 關心을 가저주기바라는바이다。

弱質 崔仁俊氏作 (朝鮮文學)

「용수」라는靑年은 頑固한 封建思想에저즌 아버지를 가젓다。
그가 東京에留學갓다가 도라올때는 「후미꼬」라는 異城의女給과 사랑하는사이가되여 朝鮮에까지 그女子를 다리고오게된다
그러나 一頑一固한 아버지는 그것을알고 그아들을 집에監禁하다、아들은 脫出하야 「후미꼬」와 사랑의 보금자리를 일운다 「후미꼬」는다시 女給이되여 그들의 삶의길을 開拓해나간다、는것이 이作品의 대강이야기다。
全篇을通하야 表現이나 描寫가沈着하야 事件展開가 順調롭고 讀者의 興味를 끄을수잇다
다만 取材에잇서서 이作의主人公「용수」가 비록 「弱質」이라하더라도 東京까지 留學을보는以上 留學은하지안코 女給을 달고나오라는것은「용수」에게 대한一般讀者의同情이 엷어지는點이다
「용수」가 차라리健實하고 沈着한사람인데두不拘하고 「후미꼬」와의軌情關係가 일어나게되엿든들讀者의興味는 더햇슬것이다。
비록 「후미꼬」에對한 純情을 가젓다하더라도 「용수」의性格이 두렷하게 나타나지못햇기때문에 「용수」는 一種의輕薄한靑年、虛華에날뛰는 사람으로바게 나타나지안햇다。그러키 때문에 「용수」에對한 一讀一者의印象은 엷버지는것이다。
따라서 비록 封建思想에저즌 頑固한 아버지라하더라도 그아버지가 「용수」를 監禁하는것거든것은 오히려 아버지로서의正當한態度라고바게 늣겨지지안키때문에 「용수」에게는 조곰도同情이가지지안는다。
沈着한描寫、表現을가진 이作家가 이作品에잇서서 「용수」의 性格에 等閑視만안햇드면 이作이 훨신나흔作品이되엿슬것이다。

自嘲=(詩)
安懷南

綿白의 우양복 두루마기가
電車속에서 陋醜하고 貧弱하게 보여지든날
나의마음은 遺書도업시 自殺하다。

奴隷根性과
卑劣한 生活感情──
껍데기만 남어서 오우스텟드를 걸처고다니다。

茶房은 汽車를 기다리는待合室이요?
雜音속에서 만난 賣淫女의秋波를
먼 他國에서처럼 想像하여 보면서
勝利者를 빨아드린다。

五十圓짜리 外套속에서
마음과肉體가 인저 完全히 腐爛하여버리자
室內는 아베 마리아를 彈奏하면서
醜惡한氣體로 充滿하여지다。

醫學漫筆(一)
─奇異한病(上)─
鄭槿陽

山嶽病、알펜、인푸루엔자、뻴그크랑크하이트、高山病等 여러가지이름으로 불리워지고잇다。그命名으로부터 이미짐작되는바와가티 노픈山岳地帶에 올려갈때에 이러나는病이다。
高山地帶에는 누구나다 알고잇는바와가티 第一먼저 생각되는바는 氣壓의 急變이다。이것이 곳 이病의原因이되는것이다。이病에걸리면、山에서 나려와서安靜하고 잇스면 恢復되다。病의原因을 업새버리니 나을것은 定한理致다。이런意味로보면 別로 病이라고 特記할만한것도못될지모르겟다。高山에 오르지안호면 이病의 洗禮는밧지안흘것이다。普通사람과가티 市井에서 그날그날을 악착히지내가는 處地로는、이病과는 因緣이업다。그러나 알피니스트에게는 한番體가 안일수업다。高山地帶에서는 그러면大體 어떠한 變動이 생길것일까。먼저도 말하엿거니와 氣壓의減下가 第一먼저오다 空氣가 稀薄해지는 關係上氣壓이내리게되다 空氣가 稀薄해지니 따라서 酸素가 缺乏하야질것이요 呼吸作用이 順調롭지못할것이다。氣溫도 나리게된다。우리가 조곰노픈山에올라도 平地보다 몹시도 찬것을經驗할수잇슬것이다。山에는 꽃지 더디게피고 단풍이 일즉드는것도 오로지 氣溫의關係이겟다。昌慶苑의 櫻花가 다저버린後일지라도 北漢山에서는 只今이 한창이엿다는經驗을 하로의遠足을 하이킹에消費한사람이면 누구나다알수잇겟다。다음으로 空氣가乾燥해진다。이것이 우리몸으로서는 견디기어려운일의 하나이다。우리가 아무리感謝도업시 마시고잇는空氣는 一定한濕度를 가지고잇는것이다。이것이 一朝에 乾燥해버리니 견딜재간이업게된다。또 紫外線이 매우强烈해진다。
이러한 모든因子가 서로合하야 우리의呼吸作用을 弱하게하며 肺와 따라서心臟에 當然히 異狀이오게되는것이며 입술이蒼白해지며 식은땀이 쭉 흐르게된다。그리고 몸에緊張이 풀리고 無限히 조름이오다。이때 조름에못이기여 자버리면 애석히도 一命을 山頂에 허트릴수밧게업게되고만다。
이러한 重한症狀은 約四千米以上되는山에 올을때에 이러난다고한다。이런때에는 出血이 오게되다。코로 눈의粘膜으로 出血이되는것이다。
航空病。高山病과恰似하다。그도 그럴것이다。飛行機等에올라 노픈空中에 몸이노여 잇슬때에 이러나는것이니 맛당히 高山病과 條件이 마찬가지가 될것이다 이때에는 우리血液에 變化가생긴다。가장顯著한것은 赤血球가 만허진다。그리고 腦에도 變調가생긴다。이것은 아마 이러한關係이겟다。우리內耳에는三半規官이라는것이잇는데、이것이 우리身體의 平衡을維持하는데큰 役割을 다하고잇는것이다。卽位置의 感覺을 左右한다。이器官으로말미암아、우리몸이 只今어떠한位置에 잇다는것을 알게되다 自由로 우리몸을 움즉일수잇는것이다 萬一、비달기(鳩)에서 이器官을 除去해버리면 그動物은 自然히 뱅뱅돌고만잇슬뿐、前進運動 或은 自己의目的地를向하는 運動은 할수업게되다。何如間、이器官에 너무나變動이 生기면 오기때문에 우리는 自己의方向을 指定할수업고 마칫내 腦의異狀까지 이르키고야마는것이나 아닐까한다 그런故로 飛行士가되라는사람은 이器官이 누구보다도 銳敏해야 할것이겟다 요새 航空熱이 甚해짐을따라 이런種類의病도 問題가 되게되엿다。모던病의 하나이다。
舞蹈病。이름은 아름다우나、매우 귀치안은病이다。손이늘떨려서、글字를쓸수도업고 그림도 그릴수업게된다。物件을 잡을수도업다。얼골과입이 妙하게 빼트러지고、이마에 주름살까지잡히게되다。흉한얼골이 되고만다 이것이甚하야지면、全身이 언제든지 움죽여가지고잇고 잠잠해와도、七轉八倒하야、진정할수가 도모지업다。筋肉은 늘 줄을주고잇다。늘 運動해가지고잇스면서도 끄칠줄을모른다。이사람에게는 疲困이라는말자는 必要하지안케되여버리고만다。
이사람은 멘스喜에나 갓다두엇스면 한목볼넌지도 모르겟다 끄칠줄을모르는 萬年땐사──기때문에、이病은 七八十日을 繼續하고 漸次로 나께는하나、또 再發하기쉽다。이런 患者에게는 하는수업스니 睡眠劑를먹여 될수잇는대로 安定시키고 硫酸마그네시움가튼 痙攣을막는藥을주는것이다。其他、水治療法 雪氣療法等을 施行한다。그러만치안은病이지만은 귀치안은病中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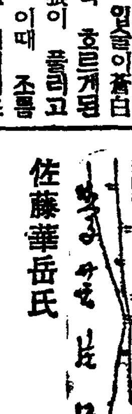
第二回 通俗醫學講演會

演士와演題
異常體質兒에對하야　全炳有
空氣와健康　崔義楫
花柳病에對하야　金應允

時日　十一月十四日午後七時
場所　中央基督敎青年會館
入場料　無料=但場內整理料十錢徵收=

主催　駱山醫學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個人展
佐藤華岳氏



南宗派의 畫家로서 特히花鳥를 得意로하는 佐藤華岳氏는 今番 美術旅行中 京城에 들닌것을 機會로 三越三層社交室에서 個人展覽會를 연다는데 會期는 十一月十三日로부터 同十四日까지이며 特히 十二日은 同好의 大方家들을 招待하여서 供覽하는바 招待日로 定하엿다는바 만히 來觀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한다。

讀者社交室

▲生은方今中學講義錄을 愛讀하야 獨學으로立身出世할라고하옵는데 將來의立志成功은 鐵道局에 志望하고잇는데 어떠한順序를밟아야겟슴니가 下敎를伏望
咸鏡線前灘驛前朝鮮運送株式會社代行營業所

▲平山郡金岩面筆岱里新岱洞살든申香女氏 지금어대게시는지本人이나 或知人되시는분으로通知하여주시면 고맙겟슴니다 그리고 父母님의 住所도 알리워주소서
沙里院東里一九 白夢兒方
一 Loo生

▲小野為吉著「漢字解說楷書千字文」 定價一圓二十錢新本同樣三錢切手二十七枚와交換 有意者先照會要
咸南端川郡廣泉面雲川里
金斗敏

▲養子! 今年二十歲된男子이온데 早失父母에독자로서 외로운生活을하고 잇슴니다 이精神的苦痛을 덜려주실理解性잇스신宅에養子를 此讀者社交室欄을通하야願함니다 仔細한것은面會時에말삼하겟슴니다 地方보다京城市內에居住하시는宅을 바람니다
苑西町住人 完應

▲滿天下讀者諸氏여 春園李光洙氏의「革命家의안해」와 沈熏氏의「常綠樹」를가지신분이계시거든左記住所로 通知하시옵소서 相當한價格이나又는 牛步作「浮萍草」와 佐藤紅綠全集一冊을 보내드리겟사이다
平南中和郡陽市 張行波

新刊紹介

▲四海公論 十一月號(內容)新聞發達史 易敏의아들 法學士 吳淸의手記 均如傳의鄕歌解釋 新婚旅行記 戚激의一週間 洪曉民 詩壇 史話 創作 長篇等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一丁目一〇 四海公論社 振替京城九八六〇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農民生活 十一月號 發行所 平壤府新陽里三九 農民生活社 振替京城四八五二番 定價十錢

「조선어표준말모음」(10)
첫재、가튼말(同義語)
(一) 소리가가깝고뜻이꼭가튼말

그네(名)鞦韆
그늬
건네
함께(副)共
함끠
한께
에게(助)그사람에게
의게
●ㅔ와 ㅣ의 通用
【ㅔ를 취함】
메역(名)甘藿
미역
베다(動)枕
비다
베다(動)斬
비다
버히다
【ㅣ를 취함】
미투리(名)麻鞋
메투리
무커리
미역감다(動)浴
메역감다
멱감다
ㅡㅂ니다(語尾)합니다

ㅡㅂ데다
ㅡㅂ듸다
●ㅕ와 ㅖ의通用
【ㅕ를 취함】
겨(名)糠
계
켜(名)層
켸
●ㅓ와 ㅗ의 通用
【ㅗ를 취함】
목접이(名)折項死
먹접이
먹제비
목줄띠(名)食道筋
먹줄띠
먹줄때기
먹두지
●ㅓ와 ㅡ의 通用
【ㅓ를 취함】
미럭(名)蠕動
미륵
●ㅓ와 ㅣ의 通用
【ㅣ를 취함】
트릿하다(形)胸不快
트럿하다

이지러지다(動)缺
여지러지다
●ㅓ와 ㅣ의 通用
【ㅓ를 취함】
예쁘다(形)美、憐
이쁘다
어여쁘다
예뿌다
이뿌다
어여뿌다
●ㅗ와 ㅚ의 通用
【ㅗ를 취함】
도롱(名)斷鰻
되롱룽
모시다(動)侍
뫼시다
온갖(冠)各種
왼갖
온통(副)全
왼통
오얏(名)李
외얏
【ㅚ를 취함】
사뢰다(動)白
사로다

사리다
쇠뇌(名)弓名
소뇌
외양간(名)廐
오양간
외여서다(動)避立
오여서다
외야서다
●ㅗ와 ㅜ의 通用
【ㅗ를 취함】
깡똥하다(形)下短
깡뚱하다
가까스로(副)僅
가까스루
가로(接)橫
가루
가로맡다(動)遮擔
가루맡다
강동하다(形)下短
강둥하다
가오리(名)洪魚
가우리
거꾸로(副)倒
거꾸루
꺼꾸로
꺼꾸루
고동(名)機
고둥
골목(名)洞口
골묵
곰송그리다(動)縮
곰숭그리다

고소하다(形)荏香
고수하다
굽도리(名)壁下塗紙部
굽두리
날포(名)數日
날푸
따로(副)別
따루
따오기(名)朱鷺
따우기
달포(名)一個月以上
달푸
도로(副)反
도루
도토리(名)橡實
도투리
목도리(名)項巾
목두리
목걸이
모조리(副)各皆
모주리
모퉁이(名)隅
모룽이
밀동(名)下部
밀둥
박공(名)屋端破風
박궁
바로(副)正、直
바루
봉오리(名)蕾
봉우리
봉오라지

사공(名)船人
사궁
서로(副)相
서루
세로(副)縱
세루
손톱(名)爪
손툽
송이(名)朶
숭이
송아리
시골(名)鄕
시굴
장도리(名)鐵鎚
장두리
재촉(名)促
재축
저고리(名)上衣
저구리
절로(副)自然
절루
조촐하다(形)潔
조출하다
좀속(名)節約
좀숙
함부로(副)猥濫
함부루
해포(名)一個年以上
해푸
홀로(副)獨
홀루

아랫목(名)溫埃焚口部
아랫묵
아롱지다(形)斑紋生
아룽지다
아홉(名)九
아훕
옴폭하다(形)凹
옴푹하다
오목하다(形)凹
오묵하다
웃목(名)溫埃焚口反對側
웃묵
웃도리(名)上部
웃두리
일곱(名)七
일굽
【ㅜ를취함】
깜부기(名)黑穗
깜보기
까투리(名)雌雉
까토리
꼴뚜기(名)飯蛸
꼴도기
꼬투리(名)豆莢
꼬토리
가두다(動)囚
가도다
가두리(名)平織邊
가도리
갈구리(名)鉤
갈고리
갈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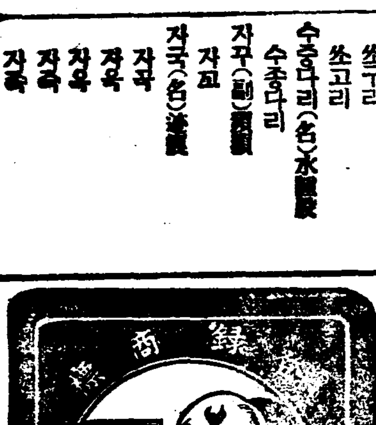
갈코리
갈구지
갈구장이
갈구랑이
갈고랑이
가루(名)粉末
가로
감추다(動)藏
감초다
가죽(名)革
가족
갖후다(動)備
갖호다
갖후쓰다(動)具書
갖호쓰다
가운데(名)中
가운대
가온대
거죽(名)表面
거족
거북(名)龜
거복
개구리(名)蛙
개고리
겨우(副)僅
겨오
고두리(名)鏑子
고도리
고두리뼈(名)大腿骨頭部

고도리뼈
고두밥(名)饘飯
고도밥
고둥(名)螺類
고동
골고루(副)均
골고로
골무(名)指貫
골모
고루(副)均
고로
고추(名)番椒
고초
고치
ㅡ구나(語尾)하구나
ㅡ고나
귀퉁이(名)耳際
귀퉁이
기둥(名)柱
기동
나루(名)津
나로
나룻(名)鬚
나롯
나중(名)後
나종
내중
내종
낭중
냥종
양중
양종

너무(副)過히
너모
눈퉁이(名)眼瞼
눈통이
딸꾹질(名)肺氣
딸꾹질
딸깍질
달구질(名)鍾地
달고질
당두리(名)大木船
당도리
다투다(動)爭
다토다
대중(名)標準
대종
대추(名)棗
대초
대조
더욱(副)尤
더옥
도루묵(名)銀鯵魚
도로묵
도무지(副)都是
도모지
동무(名)朋
동모
되우(副)劇
되오
되통
마구리(名)兩端面
마고리
망둥이(名)望潮魚

망동이
마주(副)相對
마조
마주치다(動)衝突
마조치다
마중(名)迎
마종
맞후다(動)合
맞호다
매우(副)甚히
매오
모두(副)皆
모도
모다
몽둥이(名)棒
몽동이
문둥이(名)癩患者
문동이
바꾸다(動)交換
바꼬다
바둑(名)碁
바독
발돋움(名)跂
발도둠
발도돔
바투(副)近接
바토
발구(名)雪橇
발고
벼룩(名)蚤
벼록
복숭아(名)桃
복송아

복사
봉우리(名)峰
봉오리
봉우라지
봉오라지
사뭇(副)直
사못
사무치다(動)達
사모치다
사투리(名)方言
사토리
상투(名)髻
상토
새우(名)蝦
새오
세우(副)强
세오
소쿠리(名)籠類
소코리
쏘구리
쏘고리
수중다리(名)水腫腿
수종다리
자꾸(副)頻頻
자꼬
자국(名)痕跡
자곡
자욱
자옥
자죽
자족



참으로잘듯는 해열제
元祖 竹村 돈뿌구
더운砂糖湯에녹여먹으면 곳 氣分이爽快

리베-루 リベール 優秀治淋藥

本劑의特徵
一、膓粘膜에서吸收를速히하야服藥翌朝尿를藍色으로變하야强한リベール냄새를내면서排出하야어때는벌서快感을느긴다
一、尿道를侵犯하고잇든無數한微菌은服藥後勢力이衰하야이殺菌性尿에依하야體外에排出된다따라서淋이업서지고苦痛도消散한다
一、藥効를確實히알라면リベール의服藥前과內服後의尿를顯微鏡으로比較檢査하는것이速한法으로服藥後에每日每日微菌이업서저가는現象을볼수가잇다

藥의選擇을그르치지마라
單味의白檀油球와바루삼球及在來의治淋藥等은만흔境遇에四五日間連用하야도곳藥이익어서其後암만服用하여도容態에變化가업시如前히白色粘液을分泌하는特製リベール의製劑에苦心硏究한것은오직이點뿐이다今日世界的으로リベール의需要가激增하고各國의市場에잇서서도亦是絶大의信用을博得하고盛히實用되여只今은輸出先이二十餘個國에미치는것도其効果가特히優秀한까닭이다

警告
自家尿道洗滌又는局所療法等은微菌을逆으로속에드려보내서膀胱炎을이르키거나睾丸炎에걸려서大端히後悔하는사람이만타斷然謹愼하여야한다決코他藥에迷惑치말고優秀治淋藥으로서信用할만한特製リベール를반듯이指名하시라內地滿洲國海外到處藥店에서販賣한다萬一品切時는本舖에서直送함(送料不要)

定價 五日 二圓 十三日 五圓 / 七日分 三圓 卅七日 十圓

本舖 竹村製劑所 大阪市東區南久太郎町 振替大阪三六〇番

連載野談

布衾記 (一九)

(不許轉載上演)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마저죽기소원(十八)

리선전관은 그 창두가 들아간뒤에 홀로안저,

『병조판서감!。병조판서감!』

하면서 리귀가 그첩에게 자긔를 병조판서감이라고 말하얏다는것을 거듭 생각하야본다。

그리고 리귀의 그말을 생가할사록 기쁨으로 나오는 우숨을 금할수 업섯다。

『아。나는 지금은 리선전관, 래일은 리판서。원래 사람이란 지극한 령물。그럼으로써 조곰 그른것을 막론하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필경은 그대로 되고마는것。그러커늘 내가 리판서의 입에 병조판서감으로써 오르내렷단 말이지。이것이 원래는 내의 팔자이겟지만은 그 창두의 힘이 반이상이라해도 망령의 말이라할수업는것。과연 그창두는 재갈량이야。아깝저 아까워。상놈으로 태어난것이 아까워。』

하며 리선전관은 그 창두의패와 수단을 제갈량에게 비하야 칭찬하고 다음에는 그런 훌륭한 천품과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상놈。상놈중에도 남의집 종으로 태어난것을 퍽이나 아깝게 생각하얏다。

리선전관은 이와가티 자긔가 병조판서감이 된다는 말에 대한 기쁨。그 창두의 재조와수단을 아깝게 역이는 생각을 섞바구어 가면서 자리에 누엇다。

이튼날 리선전관은 다시 지난밤에 마음속으로 길우워하든 리귀의 말을 생각하면서 신경원을 차저보기로하얏다。

이에 리선전관은 전날과 가리 인마의 긔구를 채려가지고 신경원을 차저갓다。

그래서 리귀와 윤방에게 말하든것과 조음도 틀림이 업시 자긔의 정경을 자서히 말하얏다。

그런데 리선전관이 신경원을대하야 자긔의 정경을 말할때에 속으로 스스로친근한 생각이리귀나 윤방을 대하야 말하든때와는 확실히 달럿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신경원이 리귀와 윤방을 차례로 석방한뜻이 분명 자긔일을 주선하기 위한것으로 생각이 되기때문이엇다。

그런데 신경원은 리선전관의 말을 다 드른뒤에

『무릇 벼슬이란것은 돈을 주고 올건을 사고 파는것과는 달러서 마음대로 내 노앗다가 마음대로 구하지 못하는것이야。』

하며 대번에 리선전관의 행동이 주장된 마음이 업는양으로 책망 비슷이 말하엿다。

리선전관은 신경원의 대답과태도가 뜻박게 자긔의 요량과는 틀리는것을 보고 크게 낙담하얏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생각하건대 신경원의 말이 사리에 맛는것은 물론。그와가티 나무래는 의미로써 말하는것이 오히려 친근한데서 울어러 나온것으로 생각되엇다。

이에 리선전관은 그 낙담되엇든 생각을 얼는 돌려가지고 리귀나 윤방보담 신경원에게 달려 붓는것이 제일 유익하리라는 생각으로써

『대감 말슴이 백번 당연한것을 깨달엇슴니다。그것이 모두 미거한 소치이오니 이것도 지금 대감 말슴을 듯잡고 비롯오 후회가 됩니다。왕사는 이왕 그릇되엇사오나 장래는 대감교훈대로 죽기를 맹서하압고 밟어가려 결심하오니 용서하소사。』

하며 리선전관은 다시 몸을 엎어 신경원에게 두번 절하얏다。

『글세 내가 무슨힘으로 장담하나。두고 보와-。』

하면서 신경원은 과실한 허락은 업스나 아주 때는 말은 아니하얏다。

리선전관은 신경원의 말뜻이 확실히 까닭이잇는줄로 생가하고 공손한 태도를 지으며

『대감의 하해가트신 덕택만밋습니다。』

하고 리선전관은 그이상 더 말하는것이 도리혀 일에 이롭지도 안커니와 점잔흔 사람으로 대접하는 도리도 아닌것을 생각하고 신경원에게 하직하얏다。

리선전관은 신경원을 작별하고 돌아서올때 어쩐지 리귀와 윤방을 작별하고 올때보담은 마음이 매우 유쾌하얏다。

第一回 全朝鮮教會音樂合唱大會

時日 十一月二十三日(月)午後七時

場所 京城府民館

規定

一、本大會는每年秋期에京城에서擧行함
一、本大會에優勝한合唱團에게는特定한優勝獨盃를授與함(但優勝獨盃는次大會까지保管하고三回連勝한合唱團에게는此를永久히授與함)
一、本大會參加合唱團은全朝鮮基督教(何派를莫論하고)教會合唱團에限함
一、參加申請書에는該當教會擔任牧師의認印을要함
一、出演合唱團은必히二曲을演奏하되
A、一曲은主催者側에서指定한曲(別紙添付)
B、他一曲은自由選擇曲(申請書同時提出)
一、審判은本主催者側에서指定한專門家委員의採點規定에依하야此를行함
一、本規定에記載치아니한事項은一切慣例와審判會의決議에依함

申請

一、期限 昭和十一年十一月末日까지本會에到着함을要함
一、費用 本會參加費用은各自가負擔함
一、主催者側에서定한曲譜가要할時는本會에請求함을要함(但三錢切手添付)
一、歌詞는許可手續에必要하오니原文一通과此를和文으로飜譯한것을參加申請書에添付할것

主催 京城貞洞第一教會엡웟青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라디오

十二日(木曜)

◇午後六時 管絃樂 一、선달그믐 M、L레이그編曲 二、보ー레라이…同上 三、皇帝變奏曲…同上 四、文鳥의結婚……同上 五、등꼽쟁이車…同上 六、돈넬、아부ー어同上 七、고요한밤에…同上 八、記憶하세…同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六時三〇分 趣味講演 『花郎이야기』 徽文高普 金道泰
◇同七時三〇分 國民精神作興週間(七)『公德涵養』 中樞院參議 崔南善
◇同八時 歌詞 一、竹枝詞 二、漁夫詞 金美花 金花香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三〇分 제비가外 一、제비가 二、달거리 三、금강산타령 四、방물타령 五、격양가 笑琴 崔貞植 李忠善
◇同九時(東) 合唱『千人合唱』 —日比谷公會堂으로부터中繼—

十三日(金曜)

◇午後〇時五分 배따라기外 一、배따라기 二、령변가 三、긴난봉가 四、자진난봉가 五、변조난봉가 六、개성난봉가 鄭桃玉 李錦蘭
◇同一時一五分 衛生講演 『冬節의衛生』 城大衛生學教室 朴容海
◇同三時一〇分(東) 教師時間
(第一放送에依함)
◇同六時 童謠齊唱과獨唱 一、가을바람 二、기럭이 三、가을밤 四、어머니 五、가을(獨唱) 六、빨안가락닙 七、기럭이(獨唱) 八、전등 九、밤세음을곱다가 一〇、돌꽃회 十一、우리집콩나물죽 中央保育普論會 獨唱 金貞燮 指揮 崔熙南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伴奏 任永善
◇同六時三〇分 國語講座 京城高等小學 高橋平次郎
◇七時三〇分 國民精神作興週間(八) 『報恩感謝』 國民協會理事 金明濬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 赤壁歌
◇同八時二五分 野談 奇馬橫死 申鼎言 鼓手 韓成俊 金昌龍
◇同八時五〇(東) 管絃樂 一、悲愴序曲…부라ー므스作曲 二、하이돈의主題에依한變奏曲…부라ー므스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레오니드·크로잇차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落語
◇同六時(高) 이야기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東) 義太夫
◇同八時四〇分(東) 노래

十四日(土曜)

◇午後〇時五分(東) 輕音樂 P.C.L·오ー케스트라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果實의營養』 梨專教授 金浩植
◇同六時 吹奏樂과코ー넷獨奏 一、뀌스텝 二、기럭이 三、자장가…슈베르트作曲 四、저子를…金泰哲編曲 五、내故鄕 六、들장미…슈베르트作曲 七、白騎兵 八、中東學校校歌 指揮 中東學校音樂部員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時事 洪陽明
◇同七時三〇 講演『高麗時代의書家들』 金日坤
◇同八時 伽倻琴倂唱 一、短歌…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沈淸歌 鼓手 吳太石 池龍九
◇同八時三〇 도라지타령外 一、도라지타령 二、靑春歌 三、密陽아리랑 四、긔리리아 五、江水打鈴 興打鈴 短簫 細笛 李眞紅 高敎成 崔壽德
◇同九時 流行歌 一、설음의벌판(申) 二、異域의밤차(金) 三、쌍쌍휘(六) 四、放浪者의노래(申) 五、비젓는뱃사공(金) 六、청사초롱(文) 七、陵羅島打鈴(申、金、文) 申翡秀 金海一 文華 DK管絃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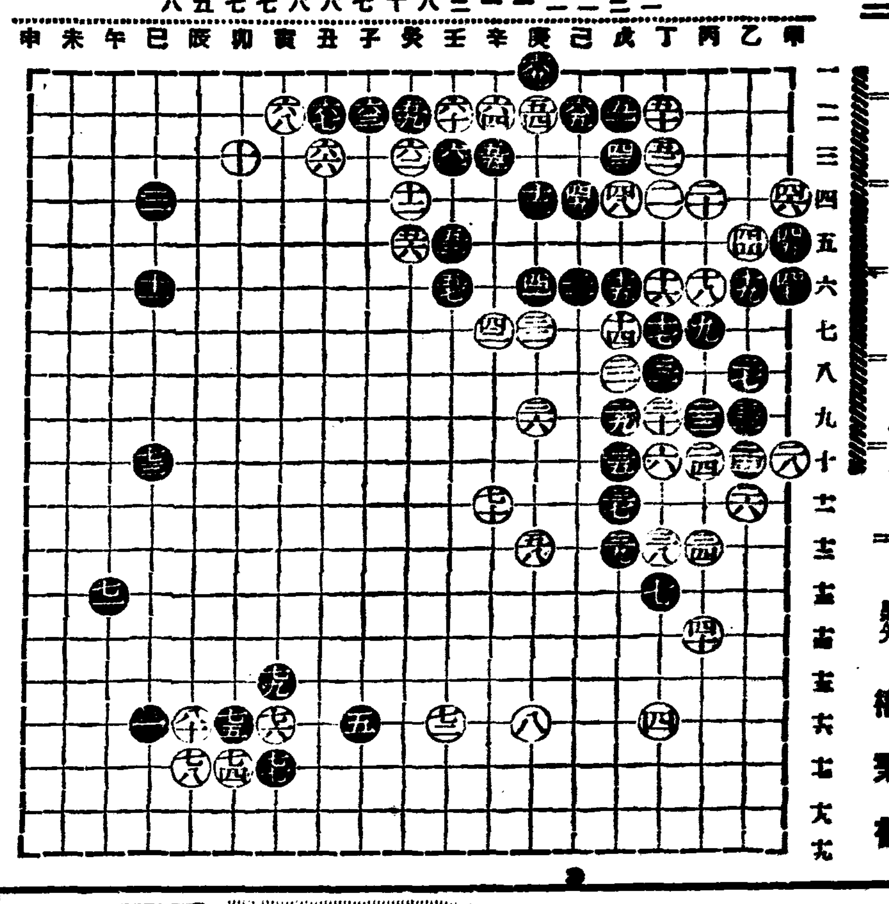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東) 講演
◇午後零時五分(東) 輕音樂
◇同二時(東) 婦人時間
◇同六時(東) 라디오·스케취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同七時三〇分(東) 바이올린獨奏
◇同七時五〇分(東) 舞臺劇
◇同九時 時事解說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5—

白 蔡極文
黑先 權秉都

● 己의二 ○ 丑의三 ● 丑의二 ○ 寅의二 ● 庚의一 ○ 辛의十一 ● 午의十三 ○ 壬의十六 ● 巳의十 ○ 卯의十七 ● 卯의十六 ○ 寅의十六 ● 寅의十七 ○ 辰의十七 ● 寅의十五 ○ 辰의十六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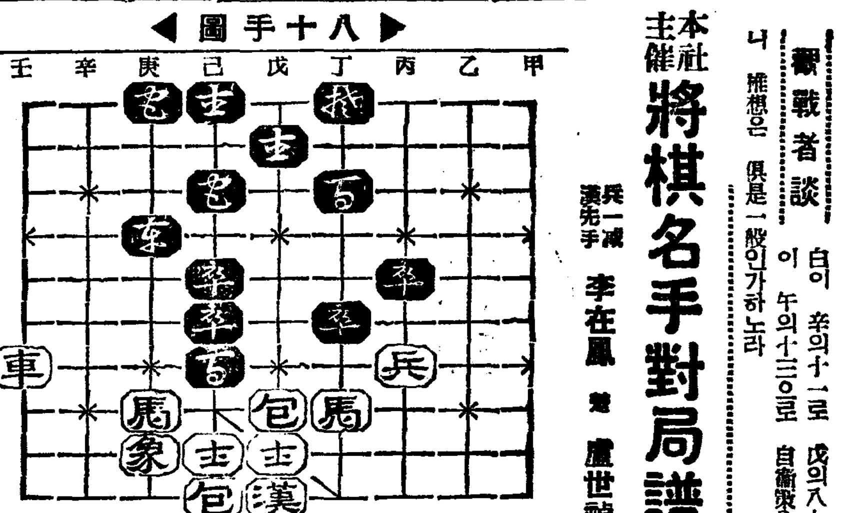
將棋名手對局譜(九)

兵一減 漢先手 李在鳳 對 盧世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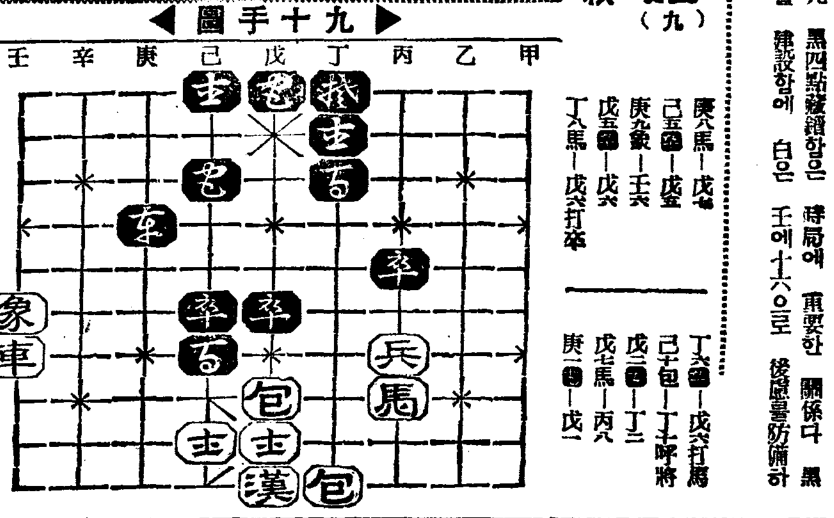
觀戰者談

白이 辛의十一로 戊의八九 黑四點殺을 策하는 時局에 重要한 關係다 黑이 午의十三으로 自衛策을 建設함에 白은 壬에十六으로 後患을防備하나 推想은 俱是一般인가하노라

◀ 十八手圖 ▶



◀ 十九手圖 ▶



庚六馬—戊七 己五包—戊五 庚九象—壬六 戊五包—戊六 丁八馬—戊六打卒

丁六包—戊六打馬 己七包—丁七呼將 戊七馬—丙八 戊三包—丁三 庚一包—戊一

創刊一年辭……主幹

詩・歌

(堂堂四百五十頁)

우리발……金東鳴
다리우에서서……林學洙
밤의讚美……盧天命
칡넝쿨……趙靈出
十一月……玄極
不安……李洽
窓……馬鳴

朝鮮地方自治制再檢討……咸尙勳

朝鮮의 地方自治制는 果然朝鮮人에게 어떠한利益을 가저다주엇나?이制度는 朝鮮人生活과 어떠한關係가잇는가 이것을鋭利한 눈으로 批判한論文으로 누구나一讀하라

稅制改革案批判……朴用來

朝鮮新聞發達史……車相瓚

한글運動의社會的意義……李克魯

東京遊記……春園

東京은 가본이도만코 안가본이도만흔곳이지만春園이二十年만에보는東京은果然어떠한가?그魅力잇는筆致로 쓰여진이글은洛陽의 紙價를 놉힐 名文이다

古藝術·新藝術의交流

△朝鮮雅樂을咸和鎭氏게들음
△古詩歌文學을李秉岐氏게들음
△古書와古畫家를高羲東氏께들음
△新文學發展을李光洙氏게들음

古藝術과 新藝術에 對한各界權威에게 本誌記者가 探訪한貴重한글 이것은 朝鮮을알려는이는 누구나 읽어야 한다

創刊一週年紀念 各界名士의祝辭

曺晩植 高羲東 梁柱王
李勳求 李瑄根 李萬珪
朴月灘 李秉岐 柳光烈
都逢涉 都相祿 孫晋泰
李淑鍾 李軒求 權相老
金尙鉻 李孝石 金仁湜
金基錫 宋錫夏 李榮俊
金周經 金秉河 金鍍根
鄭芝鎔 金允經 李一
毛允淑 李軒求 梁柱東
卞榮晩 (到着順)

現代思想文藝의…精神……仁

朝光 創刊一週年紀念倍大號

朝鮮日報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 臨時定價四十錢

映畫讀本
▲映畫監督論……申敬均
▲映畫와演劇……朴基采

扉詩……李春園
表紙……安夕影

漫畫特輯
▲ 文壇달노리大會
▲ 人生下宿雙曲線
▲ 鐵筆主婦의日記
▲ 사랑은盲目

笑話 安心外十三篇滿載
特別色刷로編輯

史話 俠客紐由 靑吾

情話 鴨綠江의… 一吾生
成功美談 … 壽春…
美談 三美人… 翠雲生
史話 … 靑波
野談 活…
民俗 水火不通
史話 까닭부른白魚

五大畫伯晩秋風景 高羲東 白潤文 具本雄 金景源 都相鳳

☆어린이世界
童話 오동… 一篇
童謠 떨…
……金泰…
衛生 늦가을어린이衛生……李聖鳳

探偵小說 疑問의毒死事件……金煥泰

長篇小說 春夢……方仁根

心頭雜草 禽獸會議……金石松

내故鄕의晩秋風景

晩秋鄕思……梁柱東
嶺西의記憶……李孝石
深山의다래……毛允淑
아련한追憶……張德祚
丹楓든南山……尹聖相

落葉日記

아리사……李源朝
짧은밤……金裕貞
制服의處女……李應淑
生活表……全武吉
凋落의가을……安懷南

古制度研究草 烽火……車相瓚

歸田園記……白鐵

中篇小說 未完成……朱耀燮
中篇小說 明日……蔡萬植
中篇小說 情熱記……嚴興燮
短篇小說 車夫……尹基鼎
映畫小說 愁雨……安碩柱
短篇小說 港口……姜鷺鄕

實話 銀貞의悲劇 (北滿에서强制結婚으로말미암아 破綻된一女性의눈물겨운悲劇의哀話……) 葵生

스포ー츠……金濟興

動亂西班牙槪觀……金贊龍

古代文化地의印象

歷史를 우리는 웨 알어야하나? 지나간 文化의자최를 우리는 웨 더듬어야하나?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明日을 建設하려는 거룩한 한계의 材料로써 알려는것이다 松都와 扶餘! 이곳은 朝鮮의 文化로써 歷史上 가장 잇지못할곳이다 우리는 두분 歷史專門家의 붓끗에서 그려진 옛모습을 읽고 다시 한번 감격하라

松都篇……高裕燮
扶餘篇……姜在鎬

朝鮮日報社主催 全朝鮮學生美展畫報

災害民의二重苦惱
支拂命令狀亂飛
光州法院管內十個月間集計
二千二百件을突破

【光州】 금년여름에 남조선일대를엄습한풍수해로인하야 전남각지농촌민은 처참한생활을하고그로인하여 가지가지의 허비국이허다하다는바 타인의불행을보고도 조곰의동정은 고사하고 차라리 사복만채우려는 고리대금업자와 도한우매한 농민에게금비(金肥)등을 농번기에 대부하야주엇다가 추수기에 이르매채권을 독촉하는자가 전남각지에발호하야 광주지방법원 (光州法院)관내만금년일월부터 시월까지의 지불명령(支拂命令)이 이천이백건이며 그중가지압류선언(假執行宣言)이 일천여건에 달하다는데 광주지방법원 목포(木浦) 순천(順天)장흥(長興)등각지청의것까지 전남전도의건수를 총합하면 무려일만건을 돌파하리라한다

梨專巡廻音樂
大盛況裡閉幕

【平壤】 리화녀자전문학교 (梨花女專) 순회음악단은 예정과가티 십일오후일곱시부터 백선행그념관(白善行記念館)에서 연주를개최하여 프로그람진행에따라 일천오백의청중을 그야말로 무아경(無我境)에 집어넛는데 성황으로일우어 순회연주의 우렁찬첫고함을 질럿다

음악회가 끗내진후 리전동창회평양지회(梨專同窓會平壤支會)주최로 부내순영리(巡營里)류옥식당(柳屋食堂)에서 감개무량한 티파-티는열니어 십이분의 간담을 피력한후 산회하야 제이코-스 차련관(車輦館)에향햇다

森嚴한警戒陣突破
秘密結社十三件
价川의軍官校生事件을爲始로
警察部根絕에努力

【平壤】 평남경찰부 고등과 (平南道高等課)에서는 작년사월 안천(岸川)과장의 취임이래 전관내의경찰을 지휘하여 비합법적지하운동을 예의수사하여 개천서(价川署)의 남경군관학교 (南京軍官學校)졸업생 중심의 비밀결사(秘密結社)사건의 검거를위시하여 평양 진남포(鎭南浦)강서(江西) 순천(順川)평원(平原) 덕천(德川) 룡강(龍岡)안주(安州)등 각개서에서 전후십삼건의 비밀결사사건을 적발검거햇다

이중에서 평양、안주、순천、룡강의비밀결사사건은 계속취조중에잇고 검거된인원도 상당한수자에달햇다

그런데 도고등과에서는 계속하여 사상관계의사건을 근멸식히고저 더욱관내십육개서를 격려하고잇다한다

無動力船만激增
動力發動機船은現狀뿐
黃海漁業界의異狀

【海州】 수산왕국 황해도지방에는 근년에잇서서 일본내지대재벌의진출로 말미암아 일본내지형어선(內地型漁船)과 동력을가진 발동기선(發動機船)이 해마다 격증하는 반면에 조선인군소어업자의 유일의 무기인 재래식조선형어선(朝鮮型漁船)은이에압도되여 감소되는 경향을뵈이고잇섯는데 작년도에는 발동기선은 한척도늘지안코 일본내지형어선과 조선형어선이 다시증가되여 흥미를끌고잇다

즉 황해도산업과(產業課)에서조사한도내수산업자의 선박(船舶)상황을보면 작년말 현재로다음과가티 동력을 가지지안흔조선형어선이일천삼백륙십삼척 일본내지형어선 구백오십사척 운반선(運搬船)팔백칠척、동력발동기선팔척으로 합계 삼천일백이십오척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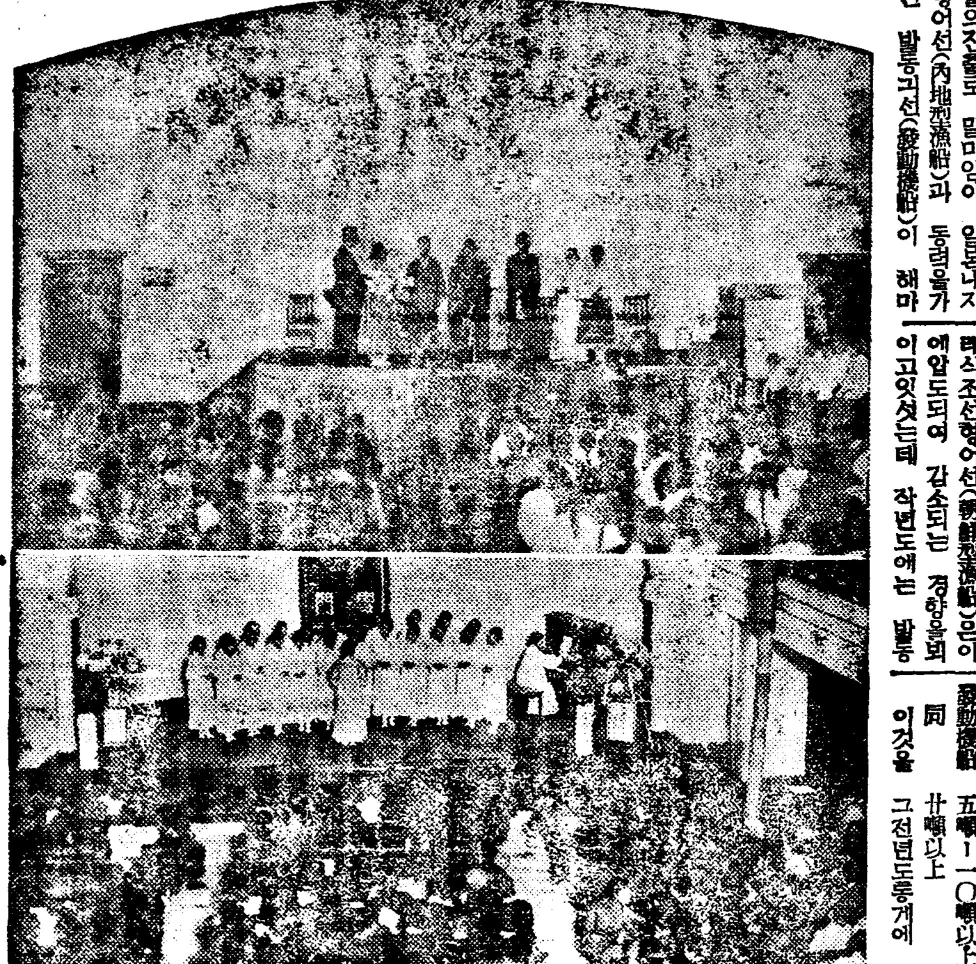
▲…無動力船

朝鮮型漁船 五米ー一〇米以上	二、三六三隻	
日本內地型漁船 五米ー一〇米以上	九五四	
運搬船 五米ー一〇米以上	七八六	
同五〇噸未滿	一四	

▲…有動力船

發動機船 五噸ー一〇噸以上	七隻	
同 廿噸以上	一隻	

이것을 그전년도통계에 비하



◇寫眞……(上)馬山義信女學校邸喜校長宣敎記念式場(馬山) (下)梨專巡廻音樂會場一場面(平壤)

義信女校校長
宣敎記念盛況

【馬山】 지난십일오후두시 마산신정교회(馬山新町敎會)내에서는 마산 사립의신녀학교(馬山私立義信女學校) 미희교장(邸喜校長)의선교 이십오주년 기념식을 수천교도와 다수방청자의 참석하에 리순필(李順弼)씨 사회로개회하고 순서에따라 략력보고 기념품진정과 축문축전 랑독이 잇슨후 각교회대표자들의 축사에드러가 씨는일즉이 처녀의몸으로 선교 교육 량대사업의 사명을띄고 인정、언어、향토(人情言語鄕土)가 다른 조선에와서 최선의 로력을다하여오기 벌서 이십오주년을 당하야 전반교우일동은 뜨거운경의를 표하는동시 씨의장래사업을 더욱그대한다는 의미심장한축사에 씨는감개무량한자태로 이가튼 깁븐경사를당하매 집거운말삼은 무어라고 형용할수업습니다마는 오로지남은 여생이나마 일반교우들의지도와 후원미테서 해나온사업에 성심을 다하겟다는답사가잇슨후 자리를옴기여 간단한연회로 동오시경 성황리에폐회하엿다

醫生講習開催

【龜城】 귀성경찰서의주최로 거구일부터 십이일간 군내 의생강습회를 열엇는바 다수집참하여 만흔효과를 엇는다한다

科目如左

外科 傳染病學
小兒科 眼科
內科 耳鼻咽喉科
產婦人科 衛生法規試驗

新興天道敎人들
又復義金寄託

【新興】 함남신흥(新興)의천도교인(天道敎人)들이 수재구제금을 본보에 기탁한것은 긔보한바어니와 다시제이차로 동군가평면(加平面)천도교인들이 아래와가튼구제금을 본보신흥지국에 긔탁하여왓슴으로 본지국에서는즉시본사로 송금하엿다고한다

▲金二十錢式 朴演植 □□□ 李□□ 李泰欽 李相道 李泰泰 □□□ 李天□ 韓用鳳 ▲一〇錢式 □□□ 李□□ 李□□ 合計二圓也

旱害克服對策으로
四千町步를改良
灌漑施設完備와土地改良等
咸南道의五年計畫案

【咸興】 함남도농무과에서는금년봄의한해(旱害)로인하야 막대한피해를바든끄테 비추워서 도내에잇는 긔성답(既成畓)과 또소규모토지개량지 사천정보를명년이후오개년 계속사업으로 륙십팔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야 적극개선(改善)을 하리라하엿는데 그 긔성답 관개설비개선(既成畓灌漑設備改善)은 삼천정보 소규모토지개량예정 면적은 일천정보라고한다

그리고 이에대한 소요경비등이십칠만원은 국고보조 (國庫補助)로 삼십만원은 도비(道費)로서 민간의 부담은 십일만원이라고한다

繃帶감은强盜
精米所에侵入

【平壤】 강도사건이 련속발생하여 범죄수사제일선의경찰관들의 신경을예민케하고잇는데 강도범인은 붕대(繃帶)를 얼골에감고 출몰한것이 판명되여 붕대감은범인을 목표로수사를진행중 엄중한경계선을돌파하고 다섯시사십분경창전리(倉田里)이백삼십이번지 정미업 김사관(金士官)의집에 역시붕대를 얼골에감은괴한이 침입하여잇섯스나 집안사람들이 소동하는바람에 아모것도 가지지못하고다라낫다한다

異域同胞敎育機關
長仁江學校新築
崔校長의盡力으로

【頭道溝】 두도구에잇는 장인강(長仁江)학교는 교장 최기환(崔基煥)씨의힘으로 대정구년에개교한이래 이십여성상을 하로와가티동포아동들의 교육을 위하야악전고투하면서 힘써오든바 지난삼월 토비의방화로 교사가전소되여 공회당과 민가를빌어서일시 유지하여오다가 당지주민들의합력으로 신교사를 건축하고 지난삼일 락성식을거행하얏스며 동일최교장(崔基煥)씨의이십년 근속표창식도 성대히거행하얏는데 일반아동들과주민들은 최씨의 공로를 감격한다고 하며당일 식장에참석한 인사들로부터 좌와가티 긔부가잇섯다

朝鮮民會金五圓 朴昌鎬金一圓 大野理事金一圓 頭道溝村公署金二圓 十里坪□□□金三圓 □野丁務所金一圓 合計十五圓也

堆肥增產等成績

【新安州】 평남안주군농회(安州郡農會)에서는 지방가면리를 중하야 산업장려를하는일방에 퇴비증산경진회(堆肥增產競進會)와밋 상전개량(桑田改良)、과·산견개량(產繭改良)등여러가지품평회가잇섯는데 그성적을 심사한결과는 다음과갓다하며 모든성적은 산간부가 가장우수한 관계로 군농회주최우수군수여는 동면(東面)으로 되엿다하며 그외는다음과갓다한다

堆肥增產競進會
山間部 一等 東面鳳德里
中間部 一等 安州邑栗陽里
平坦部 一等 龍花面細麥里
桑田改良品評會
一等 東面 二等 大尼面 三等 燕湖面
產繭改良品評會
一等 東面 二等 雲谷面 三等 新安州面

三水甲山의山地帶
벌서積雪이尺餘
木材業者에게는好機

【新乫坡】 삼수갑산(三水甲山)은벌서 영하칠도의 혹한이계속되며 지난이십일경부터 이틀간이나눈이나려 산간지대에는 적어도 일척이상의적설이 잇는바 목재를 위주로하는 산간목재상들은 호시절을 만낫다고 모-든 준비에 분망하다고한다

南浦府下에
食刀强盜
犯行現場서逮捕

【鎭南浦】 지난십일오전한시십분경 진남포 한두리(漢斗里)연초상 김형식(金亨植)방에 수건으로얼골을가린우고 뛰여들어와서 가지고왓든식도(食刀)를 번득이며 돈을내라고 강요함으로 주인의처는황겁하여 즉시금고를내여주매 현금십원을가지고 유유히다라낫다 급보를접한 진남포경찰서에서는즉시 수사망을치고 범인을찻든중 사건발생이십분만에 범인은 어느틈에의복을변장하고 범행장소에와서 태연이서잇슴을보고 김부장이하두명은 그의행동이 수상한점이잇슴을 발견하고 즉시검속취조한결과 진범인임이 판명되엿다 범인은 맹산군(孟山郡)출생으로 일정한주소가 업는박창린(朴昌麟)이라고 하며 남포서에서는 처상서장의 신입벽두에 첫사건이라 서원일동은 희색이만면하다고한다

地方人事

▲金鎬敦氏(前道立鎭南浦醫院醫官) 今般職을辭하고三和町에서 眼科、耳鼻科開業人事次本報鎭南浦支局來訪
▲岡本正造氏(朝鮮貯蓄銀行木浦支店支配人) 新任人事次本報木浦支局來訪
▲安星洙氏(昌原郡勸農主任) 新任人事次本報馬山支局來訪
▲朴普植氏(報恩普校訓導) 赴任人事次本報報恩支局來訪

掌議會를開催코
鄕校財產을公賣
中等敎育機關設置步一步進展
定平儒林諸氏猛活動

【定平】 지난구일오전열시 정평공회당(定平公會堂)에서 향교직원김두한(金斗煥)면향리진영(李鎭英)삼씨외 사십여명이 집합하야 향교전재산을 제공하여정평중등학교(定平中等實業學校)를설치코저 기성회까지 조직하고 그실현에착착 진행중이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제유림제씨가 재차대분기하야 향교재산매각(鄕校財產賣却)은 에서하나 교육사업에제공함은 오로지군민으로서 지당한일이라 하며 그공매(公賣)에편하야 당국의량해를어덧든바 정평군수 김돈희(金敦熙)씨이하 당국자들은 감탄하야 곳선처하라는 지시가잇섯다고한다 유림제씨는 금월이십일일에 장의회(掌議會)를개최하고 공매에관하야 상의하리라하며 향교전재산은 뎐야과지밧등 약이만평이며 그중 침엽수(針葉樹)도일만본이상 이라고하는데 내정가격은 삼만여원이라고한다 그런데벌서부터원매자가 이십여명이나 되다는데 이것이 매각이되면 정평에도 숙망 (宿望)의중등학교가 실현될것이라고 일반은 유림제씨에대한 칭찬이자자하다고하며 그실현을 갈망하여 마지안는다고한다

介川面事務所의
位置爭奪戰展開
結局不祥事까지演出

【固城】 고성군개천면(介川面)면사무소는 거번 풍수해로 인하야 도괴상태에 빠진 면사무소를 신축하게되자 면사무소위치문제로 면민간 대립하야 위치쟁탈전이 맹렬히 계속되여오든바 지난팔일에 필경은 폭행사건이 발생되여 경관의 제재로 해산하엿다는데 그자세한사정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현재면사무소소재지 청광(淸光)은 면중앙지대가 아니나 면중앙지인 명성(明星)으로 변경하여달라고 명성(明星)북평(北坪)례성(禮城)룡안(龍安)봉시(鳳時)오개리주민의 요구가 맹렬이 이러나자 청광(淸光)라선(羅仙)가천(佳川)삼개리주민은 현재면소재지 청광(淸光)을 변경할수업다하야 위치쟁탈전이 전개되자 본면장최□□씨는 선후책을 국려강구하엿스나 의견의 결과를 엇지못하고 결국 군당국에 위치문제를 일임하게된바 군당국에서는 면장의 의견서(意見書)를 청취하려다는 요구에 의하야 명성을 내신하매 이에 전적 상게리주민은 면장의 태도에 불평하야 면장의원자인과 면세과이인 구장들은 족서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십여명이 지난팔일오전에 면소에살도하야 면장을 사임하라고 일대소동을 야긔한사실이 잇게되엿다는데 일반사회에서는 이문제를 매우주목하고잇다고한다

盈德市內에-
電話架設着工

【盈德】 경북영덕군읍내에는 이즉까지 시내전화가 가설이되지 안허 시민은 매우 불편을느끼나 이때신영자련계로 지체되엿는데 현재 상당한 시일을 바더 지난구일부터 횡전기수(橫田技手)가출장하여 가설공사를착수하게되여 일반은 □□□□□한 만족이라고한다

全南道小作爭議
一千四百八十件
大槪가惡德地主跋扈에基因
벌서昨年件數를凌駕

【光州】 농지령발표후 악덕지주들은 농지령을 악용하야 리유업시 소작권을 박탈함에 긔인되여 전남각지에서는 금년이래 소작쟁의가 격발한다함은 루보하엿거니와 그후하절에 잇서서는 다소소작쟁의가 침식한감이엇스나 추수기를 당하매 또다시각지농촌에서 소작료로 인하야소작조정신립(調停申立)을 하게되여 판계각관청에는 분주케 한다는바 그원인은 대다수가 금년풍수해의 재난을입은농민에게 무리하게 소작료를 청구함으로서 인데 금년일월부터 시월까지의 소작쟁의건수는 일천사백팔십건에이르는바 작년일년동안의 소작쟁의건수 일천삼백오십삼건에 비하면 금년에는 시월까지의것만으로도 일백사십팔건이 격증하엿스며 금번십이월까지의건을 예상하면 이전건을 돌파하리라하야 판계관청에서는 사태를중대시하여 극력미연방지에 노력하고잇다 한다

公州私立聖德學校
新築落成式盛況

【公州】 공주군반포면 서원리(公州郡反浦面西院里)에잇는사립성덕학교(聖德學校)는 사재를거두어 교사를신축하고 지난구일에 락성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엿다한다

海州石潭學院서
夜學會를開催
農閑期를利用

【海州】 해주군고산면석담리(海州郡高山面石潭里)유지들은 지난사일부터 동리석담학원 (石潭學院)에 야학회(夜學會)를 설시하고 농민상십여명을모아 권경찬(權景燦)씨와 박연하(朴演夏)씨의 교수하에 명년사월까지 기한하야 매야열심히 배우고잇는중이라한다

改築補助는勿論
積極援助를言明
龜城公普改築有望

【龜城】 귀성공립보통학교의 교사개축문제는 귀성읍의 가장중요한 긴급문제로서 지난달구일 학부형과 지방유지등이 집합하여 그구체안을 꾸구하고 대표에는 개축련합회를 결의한후그 방책을 도와 중앙부에 진정하기로결의하야 진정위원 김창락(金昌洛)김재하(金載厦) 원홍순(元鴻淳)삼씨는 지난달하순일 그중앙을지고 상도하여 이일청식으로 도지방과장을 비롯하야 학무과장 내무부장을 력방하여 그 긴급 실현방책을 진정하고 민간의 열성잇는점을 자세히피력 하엿든바 도에서도 쾌히승인하고 개축비의 보조는 물론 적극적으로 후원 하여다는 뜻을 내시한 모양인바 교사의개축문제는 결정적으로되여 래년에는 확실히 실현을 보리라한다

朝報案內

給仕 諸用普校卒業者年十四才以上十九才以下 十四日正午까지來校 中央高等普通學校

社員 募集 三十歲以上中學卒業程度 市內保證人要 履歷書携帶來談 京城府鍾路 日光堂藥品部

超特品羊皮類一式 實成商店大廣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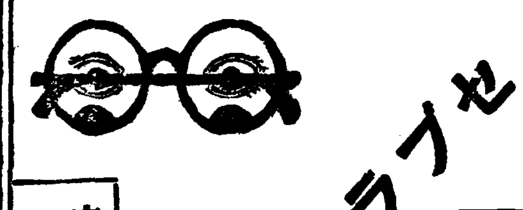
實成商店

蜂蜜 正眞 岐阜島養蜂場 岐阜市島

朴家粉・クリーム 박가분크림
本舖 京城鍾路四丁目 電話光化門 株式會社 朴承稷商店

로-쓰킹(ROSEKING)구림무
適症 美顔(미안) 어드름 雀斑(죽은깨)
製造元 バンス(빤쓰)製藥所 平壤府水玉里
總發賣元 京城 柳韓洋行 京城府西大門町二ノ七 振替口座京城五一一八

外科 肛門病科
入院室全部理療
京城府樂園洞
醫學博士 朴昌薰
電光 四五二



セブランス醫專病院
京城驛前 電本五一二二
檢眼無料 眼學生
◎急告 世富關係ル商號를使用하야好利를取하는奸商이 京城、平壤等地에有하오니 諸賢은照亮하시옵소서

마라손王
孫選手
優勝의感激을말함
레코-드를通하야
發賣中
不朽의名盤
優勝의感激 (A) 孫基禎吹込
마라손制覇歌 (B) 蔡奎燁吹込
一枚一円五十錢
Columbia
콜럼비아레코-드

若草映画劇場
▲パ社發聲ニュース
▲東日大毎國際ニュース
▲かっぽれ人生 永田キング 神田千鶴子主演
▲ヴァリエテ
大人・五〇 學生小人・三〇

新富座
◇十一月十二日부터二日間
西部大活劇 아리소니아
復讐의다오르는피와눈물그는드듸여正義에敵을復讐한다
爆笑劇 旅烏小供連
時代劇 神變不知火冠者
新堂町 電本二五四

經濟解說

意外의增收!
二回豫想發表보고

李[illegible]

×

朝鮮米 第二回收穫豫想은 十一日 午後三時 發表되엿는데 二千十九萬九千十二石으로 第一回豫想에 比하야 二十五萬六千八百十九石(一分三厘)의增收이오 舊調査方式에依하면 一千五百五十七萬二千九百七十七石으로 比前年實收 二百三十一萬一千六百九十二石(一割二分九厘)의 減收이엇다。

×

第一回豫想 一千九百九十四萬二千百九十三石이라던것은 新調査方式에 依한 未曾有의 大增收數字이나 實際는 舊調査方式에 依하면 比前年實收 一割三分二厘減收인 一千五百五十一萬六千十五石으로서 昭和四年以來의 凶作이엇섯는데 二回豫想에잇서서는 全朝鮮的豫想과 反對로 一回豫想에比하야 減收必至視되엿든바 一回豫想보다 二百萬石減收說까지잇섯든것이니 意外에도 二十五萬石의 增收로 發表하는것은 未曾有의 新記錄을 示하야 前五個年平均에比하야 三百十九萬六千三百二十二石(一割八分八厘)增收이엇스니 豫想이나 實收는 大阪期米市場前場寄後 正午에 發表되엇던 後場立會中인 午後三時에 發表한것도 遺憾한수업는일로 仁川期米는 依然 一圓에 先限이 二十七圓四十三錢에 納會後 五節 四十九錢이 되엿던것이 發表로 大節에는 一圓二十四錢低인 二十五錢으로 七節에는 二十七圓○七錢으로 떠러저 단 二節에 四十二錢의 暴落으로 止揚하것은 當局發表가 發表市場에 混亂을 惹起한것이라할수잇다。傳하는바에 依하면 新聞이 모여잇기는 即時發表하라는 農林省의 態度에 依하야 發表하얏다하나 農林省이던지 總督府이던지 이런 發表는 모름직이 慎重하얏슬 것이다。

그것은 大體하고라도 우리로서 알수업는것은 昭和凶으로 減收되리라던것이 어찌서 도리어 增收로 發表되엇는가하는 點이다。勿論實際數字와 調査는 疑心하는者아니나 이增收 發表는 意外의意外인것이다。

當局發表에依하면 九月中旬以降의 日照, 氣溫狀態가 良好하얏기때문이라하나 被害豫想하리라하던 當局調査는 어찌되엿던가이엇다。

×

이가티 意外의 增收發表가 朝鮮의 米穀事情에 어떤 影響을 주게될가가 重大關心事인바 日本內地에잇서서는 農林省으로부터 三日間에 亘하야 第二回豫想의 部分的發表를할터이라는데 十日에 第一次로 約干縣外十四府縣分을 發表하얏는데 第一次發表의 減收高로써 全部 收穫高를 推하면 六千六百六十九萬石이되어 第一回豫想에 比하야 百十一萬石가량減收되리라고하야 今日(十二日)午後가아니면 精確한數字를알수업스나 日本內地米는 百萬餘石減이나 朝鮮米는 二十五萬石增인 으로 第一回豫想과第二回豫想과는 日本內地, 朝鮮의兩地를通하야 別差異업는 供給으로到할수잇는터로서 臺灣米를 合算한것이 어찌될지모르나 第一回豫想을 가지고 過剩米가잇스리라하야 自治管理法發動을 豫想하던것이 틀림이 업게될 것같다。第二回豫想發表前期米市場에서는 日本內地米 百萬石가량 朝鮮米三百萬石가량合四百萬石의 減收로 되리라하야 買氣滋生하고 第一回發表前即祝賀後當時의 高價를 恢復하얏섯스나 朝鮮米二回豫想이 意外로 增收인것이 判明되어 朝鮮서 十一日後場에 仁川市勢가 四十錢가량떠러졋고 十二日은 大阪市場이 約二十丁떠러졋섯다。

그리하야 米管法發動不可避라던 觀測도 解消되고 米勢는 發動에 向해가게되엿스니 今後가 注目되는터이다。

新米穀年度移出 七百萬石으로推定?
減收에對한管理比率은如何
自管法發動上極注目

十一月一日부터 米穀自治管理法을 實施할 生産者側의 統制組合 其他의 모든 準備를 完了한 이때에 그實施를 前提로한 新調査要綱에 依한 生産調査인 第二回豫想收穫高의 發表가 또 同法의 實施를 必要할 만한 數字를 表示하자 미리부터 同法의 實施에 關하야 農林拓務兩省當局과 緊密한 連絡을 하여오든 總督府農林局에서는 벌서 矢島局長 鹽田米穀課長이 渡東하야 그準備工作을하든中 十一日午後 一回豫想高發表를 보前夜로 米穀課石塚技師도 渡東하엿다

그리하여 東京當局과 自治管理에對한 充分한協議를 하게되리이다 그런데今般의 第二回豫想高는 第一回보다 一分三厘의 增收를보엇스나 數量으로 二十五萬餘石의 差밧게업슴으로 第二回推算도 第一回時와 大同小異케 될터인데 自治管理의 重要目標가되는 朝鮮米의 移出數量에 對하야 總督府에서는 七百萬石假量으로 推定하게되는 모양이다 그러나 第一回時의 農林省當局의 需給推算에 依하면 朝鮮米의 移入을 八百萬石으로 推定하엿섯다 이미 自治管理가 決定的인以上 問題는

一、朝鮮米의 移出數量을 七百萬石으로보느냐 八百萬石으로 보느냐

一、今年의 朝鮮米作況은 舊調査에依하면 一回豫想은 一割二分九厘 即二百三十一萬餘石의 減收인데 이減收에對하야 管理比率(日本內地一五, 臺灣二二, 朝鮮四三)을 어느程度로 參酌하여야할것이냐

하는것이 잇다고볼것으로 今後의 推移가 注目되고잇다

一、當局의 發表에依하면 九月中旬까지는 天候不順으로 生育不良이 잇다고하나 九月中旬以降은 日照、氣溫其他의氣象狀態가 適當하엿다하고 稻熱病에關한것은 一言半句도업스니 稻熱病에關한 被害調査는 어떠케되엿는가

一、調査는 全朝鮮을 通하야 各里를 單位로 畓을 上中下로 三別하야 一萬九百二十八名의 國費調査員에 其他 面費調査員等을 合하야 二萬餘名이 二萬餘個所에서 坪刈한 結果에依한것으로 上中下의 區別 가리 말하다

에對하야 米穀課에서는 아래와 하는 點等 疑問이만흐데 이

下의 畓을撰定함에 制定이잘못되엿다면 調査數量에도 影響이 만흘것이나 큰差異가업슬터이라고미듬으로 第二回豫想高는實收에 가가운 數量일것이다

一、또 第一回豫想時인 九月二十日까지는 天候가 不順하엿든關係로 調査員들이 前途悲觀한 觀測을 하엿섯스나 그後天候가 조와젓든 關係로 稻熱病의 被害가 잇섯다해도 作況은 好轉하야 前回의 悲觀的觀測이 一掃된 것이다 그러고 各道別로보면 第一回豫想時보다 忠南 全北 全南이 多少減을 보엇는 모다 增收이다

耕地復舊費 罹災地에貸付

總督府社會課에서는 今回의風水害罹災地에對하야 耕地復舊資金으로서 東拓及金組聯合會로부터 四百萬圓을借入하야 產業組合、金組方面을通하야 罹災地에貸付할터이라한다

前五個年平均보다 三百十九萬石增
朝鮮米第二回豫想
新調查方式

旣報=第二回米作豫想收穫高는 二千十九萬九千十二石으로 第一回豫想에比하야 廿五萬六千八百十九石(一分三厘)의增收量發表하얏는데 前五個年平均實收高에比하야 三百十九萬六千三百廿二石(一割八分八厘)의增加를示하얏다 作付反別과收穫高의累年對照及道別은 如左히 發表되엇다(單位石 △印減)

米作付反別及豫想收穫高累年對照表 (△減)

年次	作付反別(町) 水稻	陸稻	計	收穫高(石) 水稻	陸稻	計
昭和六年	一、六三五、四三三	三六、七六八	一、六七二、二〇一	一五、六三〇、三四	二五三、六五	一五、八七二、九九九
七年	一、六二六、八三〇	三七、六八九	一、六六四、四九〇	一六、〇六八、三三九	二六四、四六六	一六、三四五、八二五
八年	一、六三九、四三一	三八、〇五八	一、六七七、四八九	一七、九六四、二七七	二五八、四三五	一八、一九二、七二〇
九年	一、六七四、三三七	三七、五九〇	一、七一二、九二七	一六、四七一、二〇四	二四六、一三四	一六、七一七、二三八
十年	一、六五六、二二九	三八、四九四	一、六九四、七二三	一七、六六二、八六六	二二二、八〇一	一七、八八四、六六九
同十一年(第一回豫想)	一、五五四、二七〇	三三、六八八	一、五八七、九五八	一九、七〇一、〇九一	二四一、一〇二	一九、九四二、一九三
同(第二回豫想)	一、五五五、〇七〇	三三、二三七	一、五八八、三〇七	一九、九五三、三三五	二四六、六七七	二〇、一九九、〇一二
第二回豫想과前年과의增減	△九一、〇九九	△五、二五〇	△九六、三五一	二、二九〇、四六九	△二六、一四	二、三一四、三四三
同上比率	△〇、五五	△一、三五	△〇、五七	一、三	△〇、六	一、二九
第二回豫想의第一回豫想에對한增減(△)	七九七	△四五一	三四八	二五二、二四四	五、五七五	二五六、八一九
同上比率	〇、〇一	△〇、一三	〇、〇〇	一、一三	〇、二三	〇、一三
前五個年平均(自昭和六年至同十年)	一、六四六、三三四	三七、〇七五	一、六八四、四〇三	一六、七五四、七七一	二四八、九一九	一七、〇〇二、六九〇
第二回豫想과前五個年平均과의增減	△八一、二六八	△四、八〇八	△八六、一四八	三、二〇六、五六四	△二、二四二	三、一九六、三二二
同上比率	△〇、四九	△一、二七	△〇、五一	一、九一	△〇、九七	一、八八

米作付反別及豫想收穫高道別表

道名	作付反別 水稻	陸稻	計	豫想收穫高 水稻	陸稻	計
京畿道	一八三、三一三町一	二、五五五町七	一八五、八六七町八	三、三一一、一四〇石	三五、八三五石	三、三四六、九七五石
忠淸北道	八六、五三三、七	六六七、〇	八七、二〇〇、七	八〇二、七〇三	六、五四四	八〇九、二四七
忠淸南道	一五八、三一五、五	一、七九二、一	一六〇、一〇七、六	二、二一二、六八四	一三、八七六	二、二二六、五六〇
全羅北道	一六六、六六八、一	二、六二一、二	一六九、二八九、三	一、八一七、三三六	一六、六六五	一、八三四、〇〇一
全羅南道	一九五、九七二、八	六、〇八六、〇	二〇二、〇〇八、八	二、三七二、三五九	三六、五五五	二、四〇八、九一八
慶尙北道	一八三、八〇八、五	二、三一二、〇	一八六、一二〇、五	二、五五三、三三三	五、八四八	二、五五九、〇八一
慶尙南道	一六七、一〇八、七	五、〇二〇、九	一七二、一三一、六	二、〇二九、九〇五	一一、七一三	二、〇四一、六一八
黃海道	一二八、六五三、六	三、九四〇、六	一三二、五八二、二	一、六二七、〇五五	四二、四一三	一、六六九、四六八
平安南道	七二、二四四、三	六、一二三、四	七八、二八七、七	九〇六、三六八	六八、一一九	九七四、五五七
平安北道	八七、九一七、〇	九八一、五	八八、八九八、五	一、五九三、五七三	九、一四九	一、六〇二、八二二
江原道	八一、一九三、七	四〇三、八	八一、五九七、五	九七八、一八〇	二、七二〇	九八〇、九〇〇
咸鏡南道	三八、六三三、七	八一五、七	三九、四四八、五	七四〇、五一七	七、一四四	七四七、六六一
咸鏡北道	一七、六七三、七	七	一七、六八〇、七	二一七、三三八	一四	二一七、三五二
合計	一、五五五、〇七〇、〇	三三、二三七、四	一、五八八、三〇七、四	一九、九五三、三三五	二四五、六七七	二〇、一九九、〇一二

調査方法疑問視
當局은正確을主張

旱害、風水害、稻熱病害等 가즌 災殃이 疊出하엿든 今年의作況은 第一回豫想高보다도 第二回에는 더욱減收를 보리라는觀測은 農林當局技師들도 異口同聲으로 言明하여 오든바이나 豫想外로 二回豫想高가 第一回의 一千九百九十四萬二千餘石보다 二十五萬六千餘石의 增을보아 二千十九萬九千餘石(舊調査에 依하면 第一回千五百五十四萬餘石이든것이 第二回에는 一千五百五十七萬餘石으로)으로된데는 여러가지의 疑問이 업지안타

一、自治管理를 前提로한 政治的意義는 업는가

一、新規調査要綱에依한 坪刈에는 地目選擇에 不注意한바업섯는가

米穀現在高
十一月一日現在

農林局發表=今年 새로定해진 調査要項에 基하야 十一月一日現在의 米穀現在高를 調査하건대 總數四九五、三五〇石으로 이를 前回調査(九月一日現在)에比하면 一、四九五、一〇七石의減少를 示하엿다 現在高는 如左

朝鮮米	四八三、一九五石
日本內地米	一、一一九
臺灣米	九、〇五八
外國米	一、九七八
合計	四九五、三五〇

時局經濟講演會

中外商業新報社編輯局長小汀利得氏는 渡邊同社商店課長同伴十四日東京發十六日入京키로되어 同社으로總督府殖產局商工課와 同社京城支局主催로 京城商工會議所 京城府廳後援으로 十一月十六日午後六時半부터 府民館에서「時局經濟講演會」를 開催키로되엇는데 入場은無料라고

低資活用하야 短期貯藏實施
自管法發動如何不拘

朝鮮米의 第二回豫想은 一般의 豫想에 反하야 第一回에比하야 一分三厘增으로 判明되엇스므로 自管法發動은 今後의農林省과의 折衝을 기다리기로되엇는데 이發動與否에 不拘코 朝鮮內의 短期貯藏은 從前대로實行하기로 內定하엿다

即 總督府의 意向으로는 大體 前年度와 同樣의 玄米換算三十四萬石을 一月末까지 米穀應急低資의 三千萬圓을 活用하야 强制貯藏을 行할터인데 다만 問題가 되는것은 自管法을 發動할 境遇에는 短期貯藏數量에 若干의 異動을生하게될 豫定이다

西朝鮮方面 米資金出廻

米資需要는 中旬入과함께 금식 西部朝鮮黃海道方面에 動하고잇는데 南部中部는 依然遲延한 狀況으로 下旬以降이될모양이다

意外增收로 期正米暴落

昨十一日午後三時 農林局으로부터 發表된 朝鮮米第二回收穫豫想高는 一般豫想과 反對로 二千十九萬九千餘石으로 第一回豫想에 比하야 도로혀 二十五萬石增收이엇스므로 때마츰 立會中이던 朝取期米市場은 이報道에接하야 周章狼狽하야 市勢는 急轉暴落되어 後場第四節에 二十八圓四十錢이든 當限이 七節에 ○五錢으로 二十七圓五十七錢이든 中限이 二十七錢、四十九錢이든 先限이 ○七錢에 低落을 하엿다 東阪兩地는 今朝에 報를 너허 寄付에 阪地 當限은 四十七錢 中限은 四十八錢 先限은 十八錢의慘落을보이고 軟步調로 推移되엇는데 仁川期米는 昨日止價를 低價로 反高를示하야 二十七圓一、二十錢高에서 前場을마쳣다。또 各地正米는 仁川京城이 十錢崩落後 다시 十錢軟化하야 昨日三等이 二十八圓七十錢으로떠러지고 木浦는 六十錢急落하야 三等이 二十八圓五十錢 群山은 三十錢低落하야 ◆三等이 二十八圓五十錢 ◆二等이 三十錢低落하야

軟材와前途觀

軍擴을 中心으로한 인플레景氣는 膨大한豫算만으로도 可히 推測할수잇서 大勢는 前途樂觀이라할지나 小小區區한 目前의 軟材는 株界에늘不安을주어 이不安人氣는容易히 解消되지 안코잇는데 勿論投資에 當해서는이 細心한 注意와警戒가 必要하겟지만 이에만拘泥하지말고 그材料自體를 分析해볼必要가 잇슬것이、假令 日中問題라하더라도 最惡의境遇에 이르지안흘것만은 明瞭하고 行革問題도 微妙하나、陸相聲明과 또廣田內閣의使命으로보아 某程度의 改革이될것이오 決코 이로서 致命傷을 주지는 안흘것이며 金融硬化도 今月中에는 一億圓乃至二億五千萬圓의 赤字公債도 發行될豫定이며 米券도 나오면 一般會計의 放出資金도加하야 市場은潤澤하게될것으로 豫測되며 金利도 膨脹할 豫算必至와 國債公債消化를 보아야할것이니 그다지 悲觀할것은 업다 業界를 惡化할 材料들이라고보는것은 早計가 아닐가한다

强弱材相殺?

昨後場에 反撥步調를보인 東新은 今朝에는 又復上海日本人狙擊事件의報道로 上伸力이阻害된모양으로 四十圓關門을 往來하야 마치 無氣力한 步調가치보엿스나 其實關門往來에 不過한듯한 東新의堅强味는 무서운것이 잇서보이는듯하야 만약 지금에 繼續되고잇는 强弱材의 相殺的場面을 벗어나서 새로운 動機를 잡기만한다면 三段跳躍을 示할것가튼 底堅味를보이는것은 注目할일이다 即 지금 英米財界의 好調와 重要商品高等의好刺戟도 行革問題의 微妙한動向, 取引所統制强化를 意味하는大藏 商工 兩省의 共管問題 또는 델리케트한 外交問題推移等으로해서 沫消되고 잇는것가튼 場面을 보이고잇스나 取引所共管問題가튼것도 統制强化를 意味하는것이므로 買氣가 阻害되기는하겟지만 며칠이나 살는材料이며 行革問題 日中問題는 再論할餘地도업는것이니 新動機의 비춤보면 上放할것가튼 氣勢를보이고잇는 것을 注目하여야 할일이다

株式 關門往來 堅强

前場堅强

今前場에는 東新百四十圓十錢 日產八十四圓五十錢에 各寄付하엿는데 때마츰 又復上海日本人狙擊事件의 報가잇서人氣에 多少不安을 加하엿스나 市勢는 比較的頑强하야 四十圓關門을 往來하다가 結局東新百三十九圓九十錢 日產八十四圓四十錢에 大引되어 堅强味를 보엿다

後場同調

東新一四〇(寄) 一四〇、一〇(高) 一三九、六〇(安) 一三九、八〇(引) 後場은 東新四十圓丁 日產八十四圓二十錢 新三十五圓七十錢으로 大引하야 同調이엇다

實物前場取引

[illegible]

商況 【十二日】

取引停止 (十一月九日)

◆京城府西四軒町九四番地 吳昌鎬◆綿絲布商 京城府鐘路四丁目一五八番地 全一商會 全鍾珠◆布木商 京城府橫南町一三九番地 李炳穆◆食料品 京城府貫鐵町四八番地 金德鎭

今日財界 (十二日)

◆米 仁川期米 先限 大阪期米 先限 京城正米 三等 [illegible]

◆株 朝新 東新 日產 [illegible]

◆商品 大阪綿糸 大阪棉花 大阪人絹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取引所二六〇枚)

[illegible]

大阪國債市場

[illegible]

期米 低價一巡 反高

前場反高

昨後場은 三時農林局으로부터 發表된 朝鮮米第二回豫想이 二千十九萬九千餘石, 比一回豫想 二十五萬餘石增으로 發表되자 當市場은 賣物이殺到하야 [illegible]

豫想市勢一巡 農家態度如何

前場에 報道한바와 如히 朝鮮米의第二回豫想은 昨後場에發表되어 旣히 一段瓦落을하엿고 日本內地市場은 今朝에야그餘響을 受하야 昨止價보다 十八丁瓦落으로 續後十餘丁의低落을示하엿다 要하면 朝鮮米는 意外의增收로發表되엇스나 日本內地米의 第二回豫想은 高田農相의 說明과 上에서의 座談的報告와 如히 六千六百六十萬石程度 即 一回豫想보다 一分減이오 昨年實收보다 一千萬石增加이므로 [illegible] 그런데 아프로 農家의 態度가 如何할지 此가米價前途에 非常한 關係를 가지고잇는데 朝鮮農家는 實際의 收穫이 昨年보다 二割以上의 減收가 確實한 만큼 賣惜方針이 例年보다 더욱 頑强化할것임으로 米價는 容易히 瓦落을 許하지 아를 것으로 觀測되는바 果如何?

豐作? 凶作?
二回豫想又增加

朝鮮米의第二回豫想에 對하야 從來一般農家로부터 第一回豫想보다 적어도 一割減收는 免치못할것으로 豫測하야왓섯다 그러리라고하면 昨年度實收 一千七百八十萬石에對한 一割減收는 一千四百四十萬石으로 不過할터인데 昨日後三時에 農林局으로부터 發表한바에依하면 新調査方式으로는 二千十九萬九千石으로 第一回豫想보다 오히려 二十五萬六千八百十九石의 增加를示하엿고 舊調査方式으로는 一千五百五十七萬石이나되는데 이것이 果然豐作이냐 凶作이냐 그數字로보아서는 豐作을 否定하기 難하나 그러나 農家의 그態度는 [illegible] 持米側의 商强으로 實買가 零細한 光景이라 [illegible] 果如何?

六感

……며번이나 살는 取引所 大藏商工兩省 共管問題가 又復擡頭하야 買氣를沮害◆事業株堅調와 東新의 頑重狀은 아직도 繼續되는바 維株買 主力株買繫傾向을 一掃키 爲해서는 大幅下押이 必要하고도 보는모양◆그러나 株界中心인 維株의 反動가튼 反動은 期待難◆如何든 東新이 年末에는 大市勢를 내고야말것가트데 두고보자!

米……二百萬石乃至三百萬石의 大減收를 示할것으로 豫測하든朝鮮米의 第二回豫想은 二千十九萬九千石으로 도리어 第一回보다 二十五萬餘石의 增收로發表 ◆新調査方式에依한 것이라 徹底히하엿슬것은 事實이나 秋收場에서본 一般의豫測과는 너머나 相違되다고 市中商談이區區 ◆何如間農家의 自身만은 實際의 收穫이 昨年의 實收보다 二割減收는 無異이라고 云云 ◆그야말로 農作의凶年이라 產地農家의 絕對賣惜으로 出廻는 例年의同期보다 加一層의것이며 따라서 日本內地의移出도不振할모양

朝取期米取組內容 (單位百石)

	賣方	買方
當	[illegible]	[illegible]
中	[illegible]	[illegible]
先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堂島主要賣買는 如左하다

賣方 地場軟派 臺灣側

買方 地場强氣 地場利喰 朝鮮側

京城軟調

朝鮮米增收發表로 日本內地米減收率에 比하야 十錢軟化이엇다 ◎三等二八、四〇 一等白米[illegible]

仁川軟調

朝鮮米增收發表 ◎三等二八、七〇 四等二八、四〇 一等白米[illegible]

釜山下落

豫想에 反하야 朝鮮米收穫數字는 增加하얏스나 今夕發表의 日本內地豫想數字의 全貌待에 實價를 無視히 崩壞하지안허 市勢는 前價와 大差업는 取引은 자못 不振이다 ◎三等二八、七〇 四等二八、四〇 一等白米二二、一〇

大邱暴落

朝鮮米二回豫想의 增加發表에 去益 人氣는 문허저서 又復 四十錢의 暴落이 엇는데 一般買方은 商狀安定待에 買付치안흠으로 取引은 極少하다 四三等二八、二〇 四等二七、九〇 一等白米二二、八五

群山崩落

朝鮮米收穫豫想數字가 期待에어기고 期米는續落하는데다가 奧地의 賣急物이 市場에 殺到하야 氣配다시 三十錢崩落이엇다 ◎三等二八、七〇 四等二八、五〇 一等白米二二、四五

木浦急落

朝鮮米第二回收穫豫想發表後 急落 [illegible]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京城絲布市勢 ◆京城絹布 ◆鹽油沖價 ◆鹽洋船沖價 ◆金融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圓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朝取短期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朝鮮短期

[illegible]

◆朝取期米 ◆大邱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阪期米 ◆釜山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絲 ◆大阪砂糖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安東大豆

[illegible]

期米 東 趙後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康益夏商店 米 株 仁川 京城 金益證券

仁川期米 仁 紺谷取引店 仁川海岸町

株式 米 仁川本町 京城黃金町 玉 柳來恒取引店